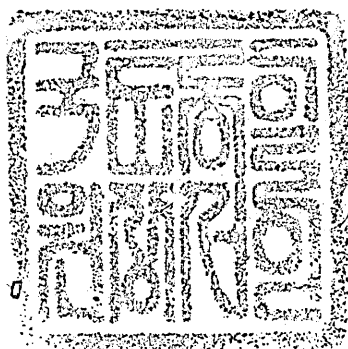


3237
3834
1.4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 第4次 會議錄 —

1989. 11.



941

國 土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目 次〉

1. 一般事項 3

2. 會議錄 7

附錄：代表團記者會見 77

1. 一般事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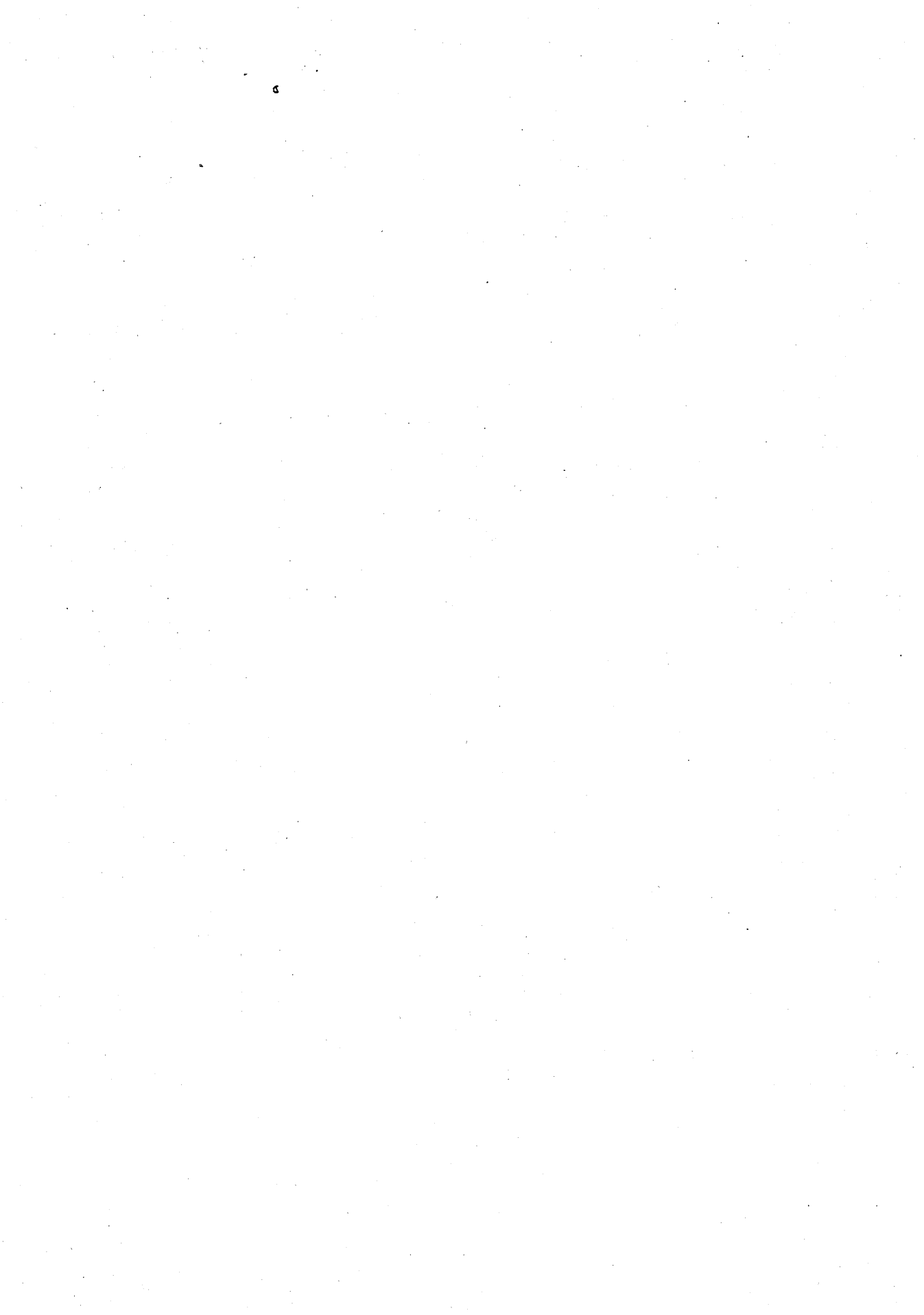
가. 日 時 : 1989. 11. 8 (水) 10:00 ~ 12:15

나. 場 所 : 板門店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室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側	北 側
<p style="text-align: center;">〈首席代表〉</p> <p>宋 榮 大</p> <p>(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代表 兼 代辯人)</p>	<p style="text-align: center;">〈團 長〉</p> <p>박 영 수</p> <p>(朝鮮赤十字會 中央委員會 常務委員)</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李 峻 熙</p> <p>(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代表)</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김 광 수</p> <p>(朝鮮赤十字會 中央委員會 委員)</p>
<p>李 柄 雄</p> <p>(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代表)</p>	<p>정 덕 기</p> <p>(朝鮮赤十字會 中央委員會 責任指導員)</p>

會 議 錄



2. 會 議 錄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南(宋榮大) :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北(박영수) : 예.

南(李柄雄) : 김선생! 오래간만입니다.

北(김광수) : 예.

南(李峻熙) : 안녕하세요?

北(정덕기) : 예.

(記者들 寫眞撮影)

北(박영수) : 거, 寫眞記者들 너무 많으니까 눈(目)이 부시구만. 어때 거기 비(雨) 많이 왔어요?

南(宋榮大) : 예, 서울을 비롯 中部地方에 100 mm程度왔고.

北(박영수) : 100 mm?

南(宋榮大) : 좀 많이 온 地域에는 約 200 mm까지 왔습니다. 그쪽은 어떻습니까?

北(박영수) : 어제 우리 한번 알아보았거든요. 氣象, 거 뭐요, 氣象觀測, 氣象觀測한 歷史以來 처음이다. 그래 그런 얘기더만.

11月달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기는 氣象觀測을 시작한 以來 처음이다. 우리 地域에는 이쪽 「연안」·「배천」 이 地域에 200 mm以上, 200.5 mm.....

北(김광수) : 氣象觀測한 以來 처음이라더구만.

南(李柄雄) : 아이구 비가 많이 왔구만요.

北(박영수) : 그건 뭐 이것 完全히 옛날에는 찾아볼 수 없던 일예요.

南(李柄雄) : 그래 우리도 秋收해 놓고 아주 걱정이 많아요. 날씨가 좋아야 빨리 마를텐데.

北(박영수) : 아 어제 밤에 내려와서 지금 「호텔」에서 자는데 비가 계속 내리더라 말입니다.

그래 어제 저녁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오늘 午前에도 또 비가 온다는 거라.

그래서 아이 이거 비가오면 야단이겠는데 그랬는데, 역시 알아주는 구만. 해가 또 난단 말예요. (一同웃음)

南(宋榮大) : 우리가 조금 일찍 만났어야 될 것인데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北(박영수) : 그래서 어제가 立冬이 아닙니까? 立冬, 오늘이 벌써 겨울이 거든요?

그래 우리가 9月 27日날 처음 만났는데 그때가 아마 秋分, 秋分이 이제 며칠 지난 以後인데, 벌써 지금 겨울철이 됐단 말이에요. 겨울철이 되었어요.

날씨가 어떻든 내가 좀 고르는데 솜씨가 있는 것 같아요. (一同웃음)

北(김광수) : 날짜 고르는데는 우리 박단장선생 才幹있는 것 같구만.

南(宋榮大) : 우리 저 날씨처럼 會談도 좀 빨리 妥結이 되어 가지고 希望을 주어야 되지요.

오늘 오면서 여기 臨津江 건너 오면서 문득 한가지 聯想되는 것이 있어서 좀 말하고자 합니다.

박선생 지난번 왔을 때 보셨겠지만 臨津江鐵橋가 끊겨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으로 架設되어 있는, 臨津江 鐵橋옆에 架設되어 있는 다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往來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끊겨진 鐵橋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南北사이에 끊겨진 人道的 架橋의 復元工事を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復元工事を 하기 위해서 1次 接觸때에 設計圖 내놓았고 2次 接觸때에 그 設計圖에 따라서 工事を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方法論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次 接觸때에 이 復元工事하는데 가장 중요한 橋脚 두 個 놓았습니다.

하나는 本會談 再開날짜 合意 또 하나는 第2次 「訪問團」 交換날짜 合意라고 하는 橋脚 두 個 놓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두 個 程度의 橋脚 놓게되면 重要的 工事は 끝나지 않겠는가. 그래 오늘은 나머지 橋脚놓고 위에 連結하고 그리고 竣工式까지 해야 되겠다.

北(김광수) : 마무리 해야죠, 마무리…….

南(宋榮大) : 나름대로 竣工式하기 위해서 準備를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뭐 必要的 「테이프」(tape)·가위 등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記者先生들 賀客도 있는 마당에서 이것 竣工式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希望을 가지고 왔습니다.

北(박영수) : 人道的 分野에서 架橋를 놓는 것, 우리가 뭐 지금까지 先導的 役割을 해온 것만은 事實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人道的 分野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統一의 디딤돌을 놓자는 것, 統一의 架橋를

놓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인데.

우선은 우리가 이 일을 잘해서 이것 分界線은 없애버려야 되겠다 말이예요. 어쨌든 이제 남(他人)이 그어놓은 分界線, 境界線인데 이걸 우리가 아직 44年동안 없애지 못하고 있던 말이예요.

그래 이런 것을 없애는데서 우리 赤十字가 앞장서 왔는데 지금까지, 역시 이번에도 마지막 「테이프」를 먼저 끊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會談을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 體育이 앞서 나갑니다, 우리 보다는.

體育은 난 인차 될 것 같아요. 우리보다 지금 狀態는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南(李柄雄) : 오늘 우리가 앞섭니다, 우리가. (一同웃음)

北(박영수) :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馬力을 내려 오늘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아요.

南(李柄雄) : 우리 最善을 다해 봅시다.

南(宋榮大) : 事實 지난번 接觸에서 우리 雙方이 『本會談 날짜 또 第2次 「訪問團」交換날짜에 대해서 合意했다』하는 報道가 나가자 우리側 離散家族들은 이 설레임속에 부푼 期待에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第2次 「訪問團」事業이 實現될 것인가 半信半疑하던 분들도 『이제는 되는가 보다』하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最近에 離散家族들로부터 우리 赤十字社에 걸려온 電話가 꽤 많습니다.

그 內容은 大部分 『이번 訪問團이 成事될 것 같으냐?』 『내가 이번에 故鄉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이런 質問들이예요.

물론 나도 個人的으로 그와같은 電話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나는 그분들에게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最善을 다하고 있으니까 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約束을 하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우리의 接觸에 그 어느 때 보라도 內外的 關心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인가 結論을 내려야 되겠다. 大團圓의 幕을 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立場으로 오늘 왔어요.

北(박영수) : 내가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을 내 하나 좀 이야기 거리를 하나 하고 싶은데.

어제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에, 우린 어제 아침에 떠났으니까 開城으로.

會談하러 내가 開城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간단한 가방을 꾸리고 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아이가, 지금 中學校에 다니는 막내아이가 뭐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버지! 이번에 내려가서는 다 決定이 되는가?』 그것을 물어보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決定을 해야 되겠는데 딱떨어진 각오로 『내 너한테 아직 約束은 아직 못하겠다. 왜 그러느냐? 우리 혼자 하는게 아니라 雙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뭐 또 討論이 되는 것을 보아서 해야된다.』

그러니까 그 애 하는 말이 自己네 學級동무들 가운데 할아버지·할머니가 남쪽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네요.

그럼 저 그런 아이들이 우리 애보고 나한테 가서 『빨리 이 會談을

妥結시켜서 왔다갔다 하는 門을 좀 열어놓도록 해달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번에 내려가서 이 會談을 잘 끝내고 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나보고 하더라 말이예요.

내가 그래서 이것 역시 이 人道的 會談에 대한 이 期待와 關心은 뭐 어른들, 離散家族 뭐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至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다.

南(李柄雄): 그래 오늘이 重要的 날이지요. 한달 꼭 남아 있으니까, 12月8日로 우리가 合意한 날짜로부터 한달 남아 있으니까.

오늘 뭐 어떻게 終結해서 結束을 합시다.

北(박영수):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나자부터 벌써 氣分狀態들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南(李峻熙): 좋은 消息 傳할 수 있게끔 잘해야지요. (一同웃음)

南(李柄雄): 뭐, 좋은 消息 가져갈 수 있겠구만.

南(宋榮大): 이것 뭐 以心傳心이라고 많이 合一되는 것 같은데…….

北(정덕기): 會談이 좀 잘될 것 같구만.

北(박영수): 내가 어제 내려오기 前에 이틀 前인가 우리 박동춘 副委員長 동무를 만나고 내려왔는데, 저 「제네바」에서 며칠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霧圍氣가 아주 좋았다. 그 뭐 옛날에 없던 우리側에서 먼저 食事を 점심에 招待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서는 또 李榮德首席代表가 거기에 갔었다구만?

南(宋榮大): 예, 이번에 가셨어요.

北(박영수): 李榮德首席代表가 食事を 차리고 우리 代表들을 招請하고 아주 霧圍氣가 좋았다고 그래요.

南(李柄雄) : 모든 일 論議해서 또 잘되었고요.

北(박영수) : 예.

南(宋榮大) : 그리고 그 赤十字社聯盟總會에서 雙方代表들이 發言을 하면서 우리 實務代表接觸이 열리고 있다는 事實을 다른나라 代表들에게 全部 알려주면서 우리 支援·聲援해달라 해서 拍手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다른나라 代表 한분은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하는 자리에 한번가서 보았으면 좋겠다』하는 希望까지 表明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北(박영수) : 와서 많이 보이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南(宋榮大) :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 內外的 關心이 오늘 이 接觸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들의 期待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 膳物을 안겨주기 위해서 오늘 會談을 시작해 보십시오.

北(박영수) : 해가, 해가 分明히 나기 시작했지요?

北(김광수) : 아마 宋先生 子息들 結婚式 날짜 定하자며는 박단장한테 依賴하는 것 靚찮을 것 같구만. (一同웃음)

北(박영수) : 날짜는 내가 定해 올릴게요.

南(李柄雄) : 그러니까 婚事날 定할 때 그러면 招請을 하지요. (一同웃음)

北(박영수) : 電話든가 會談席上에서든가 내가 날짜를 定해줄 用意이 있어요.

南(宋榮大) : 날짜 定하는 것도 좋은데 좋은 結果를 生産하는 것이 더 重要하지요.

北(박영수) : 물론 結婚式이야 뭐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면 날짜를 잘 定해주면 무슨 報答이 있겠죠?

南(李柄雄) : 아, 물론 그렇죠. (一同웃음)

南(宋榮大) : 자, 그럼 우리 서서히 會談을 시작해 보십시오.

北(박영수) : 場內를 좀 整頓하십시오.

오늘 상당히 霧圍氣가 좋습니다.

南(李柄雄) : 霧圍氣가 좋은 것 같은데 잘 되어야죠.

北(박영수) : 나는 오늘 여기 진짜 이것 비가 올까봐 걱정을 했는데 ...

南(宋榮大) : 그러면 박선생! 오늘 會談의 公開與否는 우리는 慣例에 따라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貴側의 意見이 어떻습니까?

北(박영수) : 慣例라는데 非公開죠?

南(宋榮大) : 예, 그렇죠.

北(박영수) : 그걸 뭐 繼續 말하겠어요. 한번 말했으면 그저 그만이지.

저 峻熙先生!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一同웃음)

南(李峻熙) : 아니죠, 뭐 이일이 잘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다 수고 많이 하면 좋죠.

南(李柄雄) : 김선생도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北(박영수) : 그럼. 사람은 뭐 人物이 고아서가 아니라 일이 고으니까 일을 다 잘하면 고운거고.....

北(김광수) :李先生! 한대 태웁시다.

南(李柄雄) : 아니, 나 담배 안 피웁니다.

담배 이제 끊으실 때 되었을 텐데.

北(김광수) : 옛적에 피워서.....

南(李柄雄) : 아니, 나이 많이 드시니까 더 피우시는 것 같은데?

南(宋榮大) : 박선생! 지금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것 같은데 요즈음 어

떻게 좀 줄었습니까?

北(박영수) : 하루에 담배를 그저 열, 내가 매번 평균치를 내보니까 열들, 열두대 한곽 다 못피우더만.

내 그래 醫師들 하고 이제 診察할 때 내가 지금 담배 열두대쯤 하는데 이것 어떠냐. 이것 아예 없애야 되느냐 어떠냐 그러니까, 글썸 完全히 끊으면 더 좋은데 정 그러면 그 이상을 超過하지 말아라.

그런 程度로 그저 妥協이 됩디다.

南(李峻熙) : 열두대면 많은 量이 아니네요.

뭐 하루에 열개치 程度는 별로 많은게 아니예요.

南(李柄雄) : 김선생! 담배는 얼마나 피우세요, 하루에?

北(김광수) : 뭐, 하루에 열댓대 나오죠.

南(李柄雄) : 한갑 조금 못되는 量이죠?

南(李峻熙) : 그쪽이 더 많이 피우시는 것 같아요?

北(김광수) : 예, 많이 피우는 편입니다.

南(李柄雄) : 아까부터 보니까 담배를 繼續 물고 계시는 것 같아요.

北(박영수) : 그쪽의 이 담배 한번 피웁시다.

그쪽의 담배는 이게 나은 것 같애 이것보다, 이건 女子用이 아네요?

이게?

南(李柄雄) : 우리 것이 좀 弱하지요?

北(박영수) : 연해요.

北(정덕기) : 氣管支에는 조금 낫지요. 나쁘지 않지요.

南(宋榮大) : 어디 정선생은 담배를 안피우시는가요?

北(정덕기) : 난 그저 피우기도 하고 안피우기도 하고 적당히…….

北 (박영수) : 거의 안피우는 편이지.

南 (宋榮大) : 몸이 아주 좋아 보이세요.

南 (李柄雄) : 醫師들은 담배 피우지 말라 그러지요.

北 (박영수) : 그런데 우리처럼 담배 피우다가 안피우면 몸이 난답니다.

몸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더 나쁜거고 그래 봐서 그저 지금 水準을 維持해가는 게지.

南 (李峻熙) : 그래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어 가지고 몸이 나니까 다시 피우고 그렇게 되죠.

北 (박영수) : 예, 5 내지 7kg은 꼭 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이야기를.....

南 (宋榮大) : 예, 먼저 하십시오.

北 (박영수) : 예, 그렇게 하죠.

<北側 基本發言>

남측대표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과 제 11 차 북남적십자회담 재개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네번째로 접촉을 가지게 됩니다.

한두차례의 접촉으로 끝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본 실무대표접촉이 세차례의 접촉을 통해서도 결속되지 못하고 네번째의 접촉을 가지게 된 데 대하여 우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접촉들에서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제 3 차 실무대표접촉에서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날자와 제 11 차 적십자본회담의 개최날자에 대해 견해의 일치를 본것은 우

리 쌍방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하나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을 12월 8일에 교환하고 제 11 차 적십자 회담을 12월 15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는 상정된 두가지 인도적 사업을 올해안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문제토의를 계속해 나가려면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을 시급히 토의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쌍방사이에는 우선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의 규모문제와 관련하여 고향방문단을 각기 300명으로 하는데는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지만 예술단의 규모는 지난번 접촉때에 우리가 우리측 예술단을 300명으로 하고 귀측 예술단을 50명으로 구성할데 대한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향방문단의 방문지문제도 고향방문단의 방문지는 평양과 서울에서 할데 대한 우리측의 주장과 방문지를 직접 고향까지 가는 것으로 할데 대한 귀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합의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의 공연을 텔레비존과 라디오로 실황중계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일련의 실무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토의도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시급히 합의점을 모색함으로써 이미 합의한 날자에 제 2 차 예술단, 고향방문단 교환사업과 제 11 차 적십자본회담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측대표여러분!

쌍방이 합의한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의 교환시일까지는 이제 꼭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일은 촉박하며 본 실무대표접촉은 시간적으로 적지않게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나머지 문제들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많은 정력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했던 날자들에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을 교환할 수 없게 되고 제 11 차 본회담도 진행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접촉에서 어떻게 하나 쌍방사이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의 규모와 방문지, 예술단공연의 실황증계문제 등 나머지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를 거쳐 합의를 이룩하자면 상정된 문제들을 토의하는데서 쌍방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적 입장에 서는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선 쌍방은 문제토의에서 적십자인도주의원칙에 충실하는 동시에 인도적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통일의 디딤돌을 마련해 나가려는 립장에 철저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시 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은 흠어진 가족, 친척들에게 혈육들과의 상봉에 대한 기쁨과 희망을 안겨 주는것과 함께 중요하게는 북남적십자 본회담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여 통일의 디딤돌을 마련해 나가려는데 기본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2 차 예술단과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예술단의 규모나 고향방문단의 규모나 다같이 1 차 예술단, 고향방

문단 교환때보다 늘여나가려는 립장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쌍방이 제 3차 접촉때에 다같이 고향방문단의 규모를 1985년도 때보다 6 배로 늘여 300명으로 제기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술단의 규모를 몇명으로 하고 예술공연의 회수를 얼마로 하며 상대방의 예술공연을 텔레비존과 라디오로 실황중계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의 립장은 지금까지의 접촉들에서 거듭 강조한바와 같이 예술단의 규모도 제 1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때보다 많이 늘여 300명으로 하고 예술공연의 회수도 4회로 늘이며 각기 상대방의 예술공연을 텔레비존과 라디오로 실황중계도 하자는 것입니다.

고향방문단규모를 제 1차 방문단교환때보다 대폭 늘여 300명으로 하면 혈육들과 상봉할 수 있는 대상이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이며 그 사실을 통하여 모든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자기들도 갈라진 부모, 형제, 처자들과 친척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더 크게 가질수 있게 되리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예술단의 규모는 300명으로 늘이면 오래간만에 진행되는 예술단교환공연을 북과 남의 예술인들이 최고의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것을 각기 텔레비존이나 라디오로 실황중계하고 공연회수도 지난 시기보다 더 늘여 북과 남의 각계층 인민들이 다 보게 하면 서로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은 물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기운도 훨씬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향방문단의 규모와 함께 예술단의 규모도 대폭 늘

이고 예술공연회수도 늘이며 더우기는 각기 상대측의 예술공연을 실황중계하는 문제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실무대표들에게 부여된 본연의 사명과 우리들이 토의해결해야 할 문제의 성격을 똑바로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상정된 문제들을 토의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접촉은 제 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과 본회담의 재개 문제를 토의해결하기 위한 실무대표 접촉입니다.

그러므로 실무대표접촉소관이 아니고 응당 본회담에서 토의할 성격의 문제를 상정시켜 토의하게 되면 문제를 옹계 해결해 나갈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도주의 문제해결에서 여러가지 복잡성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아도 리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토의해결하려는 제 2차 예술단과 고향방문단 교환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흠어진 가족, 친척들에게 혈육들과의 상봉에 대한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고 적십자본회담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귀측이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을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래왕을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제 2차 예술단과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의 성격을 잘 리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시범적인 사업과 상징적인 사업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귀측이 주장하는 리산가족들의 자유래왕 시범사업은 본회담에서 자유래

왕문제에 관한 토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가서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은 본회담에서 서로 자유래왕문제에 관한 제안들을 내놓고 있는 단계이며 앞으로 그것을 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자유래왕의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애당초 설정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쌍방은 이미 제 8차회담때에 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의 교환을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래왕의 시범사업으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혈육들과의 상봉에 대한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기 위한 상징적인 사업으로 진행할데 대하여 합의하고 실현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측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향방문단이 직접 고향까지 가도록 하는데서 제기되는 래왕절차와 편의보장등 여러가지 문제들은 지금 본회담에 상정되어 있는 자유래왕절차에 관한 문제들인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가지 부언한다면 우리 나라의 현실적 조건에서는 고향방문단 성원들이 고향까지 간다고 해도 거기서 모든 가족, 친척들을 다 만날수 없습니다.

나라가 분렬된지 44년이나 지나고 전쟁이 일어난 때로부터도 39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서만 사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리유로 하여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고향방문단 성원들이 가족, 친척들을 모두 만나보려면 자기 고향에만 가서는 안되며 그들이 사는 여러곳들을 다 돌아다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유래왕이 실현되기 이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귀측도 잘 알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쌍방은 고향방문단의 방문지문제를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의 성격과 제 1 차방문단 교환때의 전례, 그리고 현실적조건에 맞게 토의해결하려는 립장에 서야 할 것입니다.

쌍방이 이러한 립장에만 선다면 우리는 제 2 차 예술단과 고향방문단 교환문제에 대한 토의를 시급히 결속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문제에 대한 토의를 하루빨리 결속하려는 념원으로부터 지금 쌍방제안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있는 예술단규모문제에 대한 우리의 절충안을 다시금 내놓으려고 합니다.

지난번 접촉때 우리가 예술단인원을 우리측에서는 300명, 귀측에서는 50명으로 정할데 대한 안을 제의하였는데 이것은 쌍방의 립장을 다같이 견지하면서 예술단규모문제 토의에서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기한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이것을 형평성이 없다는 리유로 받아 들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는 예술단의 규모를 50명으로부터 300명의 범위안에서 각기 편리하게 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새로운 절충안은 귀측이 지난 제 3 차접촉 마감시간에 예술단의 규모를 각기 편의주의적으로 정하자는 안을 내놓았던 것을 고려한 것으로서 우리측이 크게 양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술단규모문제를 오늘 새롭게 다시 제기한 우리의 절충안에 합의하는데 귀측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나는 이러한 제반사실을 고려하여 오늘 접촉에서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과 제 11 차 북남적십자 본회 담재개문제에 완전한 합의를 이룩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이와 관련한 합의서안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과 북남적십자 본회담 재개문제에 관한 합의서안

북남적십자단체 실무대표들은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교환과 제 11 차 북남적십자본회담 재개문제에 대하여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

1) 방문단의 명칭

방문단의 명칭은 각기 편리한대로 부른다.

2) 방문단의 구성 및 규모

- ① 방문단은 쌍방 적십자단체 부책임자를 단장으로 하여 예술단, 고향방문단, 취재기자 그리고 수원으로 구성한다.
- ② 예술단인원은 50 명으로부터 300 명까지의 범위안에서 각기 편리한대로 정한다.
- ③ 고향방문단은 300 명으로 한다.
- ④ 취재기자는 30 명으로 한다.
- ⑤ 수원은 40 명으로 한다.

3) 방문단교환방법

동시 교환방문방식으로 한다.

4) 방문시기

교환방문시기는 1989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3박4일)로 한다.

5) 방문지

방문단의 방문지는 평양과 서울로 한다.

6) 예술단의 교환공연과 관련한 문제

- ① 예술단의 공연내용은 민족적인 것으로 하며 상대측을 비방중상하는 것을 삼가한다.
- ② 예술단의 상대측 지역에서의 공연회수는 4회로 하며 매회당 공연시간은 2~3시간으로 한다.
- ③ 예술단공연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초청측은 공연시설이 완비된 장소를 상대측에 제공한다.
- ④ 예술공연에 필요한 무대장치와 기술기재, 조명장치 등은 공연자측에서 가지고 갈수도 있고 상대측시설을 리용할 수도 있다.
- ⑤ 공연장소를 사전에 료해하기 위하여 2명의 적십자일군과 3명의 전문일군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상대측지역에 파견한다.
선발대의 파견시기는 1989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2박 3일로 한다.
- ⑥ 공연종목소개는 공연자측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되 상대측을 비방하지 않는 원칙에서 한다.
- ⑦ 공연안내장은 공연측에서 준비하여 가지고 가서 관람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 ⑧ 초청측은 상대측 예술단의 공연을 텔레비존방송과 소리방송으로

실황중계한다.

- ⑨ 초청측은 공연자측의 요청에 따라 기술인원과 기타 인원들의 로컬적방조를 제공한다.

7) 고향방문단의 교환과 관련한 문제

- ① 고향방문대상은 평양과 서울에 고향을 둔 당사자들을 위주로 한다.
- ② 고향방문단 성원들의 상봉대상에는 헤여질 당시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 친척의 경우에는 방계 8촌, 처, 외권은 4촌까지로 하며 그밖에 본인이 요구하는 친척도 포함시킨다.
- ③ 초청측은 적십자인도주의원칙에 따라 방문자들의 희망대로 모든 성의를 다하여 연고자들을 찾아주며 그들이 상봉의 기쁨을 나눌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④ 고향방문단 성원들에 대한 자료는 출발하기 20일전에 판문점 연락대표부를 통하여 초청측에 넘겨준다.

고향방문단 성원으로 상대측에 갈 대상에 대한 자료에는 사진과 함께 성명, 성별, 연령, 출생지, 부모의 성명, 갈라지기 직전의 주소, 직장직위를 밝힌다.

상봉대상에 대한 자료에는 성명, 성별, 연령, 출생지, 방문자와의 관계, 헤여질 당시의 주소와 직업을 밝히며 그밖에 필요한 내용을 첨부한다.

8) 신변안전 및 편의보장

- ① 제 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과 그 가족, 친척들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각기 관계당국이 안전담보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며 그 문본을 방문단이 상대측 지역으로 넘어가기 7일전에 판문점 연락

대표부를 통하여 교환한다.

- ②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순간부터 그들의 숙식과 교통, 의료봉사 등 모든 편의는 초청측이 책임지고 무료로 보장한다.
- ③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의 상대측지역 체류기간 행낭운반은 초청측에서 매일 1~2 회정도 보장한다.
- ④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의 상대측지역 체류기간 통신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북남사이에 가설되어 있는 적십자 직통전화를 리용한다.
- ⑤ 초청측은 상대측 기자들이 예술단과 고향방문단 성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보장한다.
- ⑥ 초청측은 고향방문단 성원들이 가정적 분위기속에서 가족, 친척들과 상봉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보장하며 개별상봉시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9) 기타절차

- ①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의 군사분계선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하며 통과절차는 제 1 차 방문단 교환때와 같이한다.
- ②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성원들은 자기측 적십자 중앙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휴대하고 적십자휘장을 단다.
기자들은 그밖에 기자완장을 낀다.
- ③ 기자들은 상대방을 비방중상하고 자극하는 취재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④ 적십자단체 부책임자와 예술단, 수원, 기자들의 명단은 방문 10

일전에 판문점 연락대표부를 통하여 상대측에 넘겨준다. 명단에는
성명, 방문단직위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 ⑤ 제 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의 상대측지역 체류와 관련한 일정
협의를 방문 1주일전에 한다.

2. 북남적십자본회담 재개문제

1) 본회담장소

제 11 차 북남적십자회담은 평양에서 하고 제 12 차 회담은 서울에서
한다.

2) 본회담의정

제 11 차 북남적십자회담에서는 제 10 차회담에서 토의합의된 내용을 계
승하여 토의한다.

3) 대표단구성

본회담대표단은 종전과 같이 쌍방 적십자단체 부책임자를 단장으로
하고 단장을 포함한 7명의 대표와 자문위원 7명, 수원 20명,
기자 50명으로 구성한다.

4) 본회담시일

제 11 차 북남적십자 본회담시일은 1989년 12월 15일로 하며 제 12
차 북남적십자 본회담의 시일은 1990년 1월 18일로 한다.

5) 기타절차

- ① 본회담절차는 이미 합의된대로 한다.
② 신변안전 담보성명은 다시 발표하고 그 문본을 교환하되 제 11 차
적십자본회담 참가자들의 명단을 우리측에 넘겨줄 때 교환한다.

1989년 11월 8일

판 문 점

이상이 우리측의 합의서 초안입니다.

우리가 제기한 합의서 초안에는 제 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의 교환 시일과 적십자 본회담의 재개날자 등 일련의 문제들에서 이미 쌍방에 견해의 일치를 본 문제들을 그대로 담았으며 그리고 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의 규모문제에서도 이미 제기된 귀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입니다.

그밖에 예술공연의 실황중계나 고향방문단의 방문지 문제에서도 이미 위에서 언급한 원칙적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귀측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나는 오늘 접촉에서 우리측이 제기한 이 합의서안을 놓고 한문제씩 확인하고 본접촉의 정식 합의서로 채택할 것을 제의합니다.

以上 제 基本發言을 끝마쳤습니다.

그래 뭐 發言한 內容에 充分히 反映이 돼있는데 오늘 이 우리가 合意한 第2次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날짜를 꼭 한달 앞두고 있는 接觸인 것만큼 오늘 接觸에서는 어떻게 하나 이거 妥結을 지어야 되겠다.

基本妥結을 다 짓고, 여기서 合意書 採擇을 하면 더 좋은데 만약 그게 안된다면 뭐 인차 代表들 한명씩 任命해서라도 合意書를 文案을 이렇게 整理해서 빠른 時日안에 正式 合意書로 世上에 公開하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의 基本趣旨이고 또 期待이고 希望입니다.

그쪽에서 좋은 案을 提起해 주기를 期待하면서 이것 우리 合意書案인

데 이것 參考로 하십시오.

南(宋榮大) : 貴側의 合意書案과 關聯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理解하기로는 貴側에서 지난 第1次 接觸때 내놓은 提案하고 比較를 해 볼 때 規模하고 訪問時期를 除外한 餘地의 問題는 지금 내놓은 合意書案하고 그때 1次 接觸때 貴側에서 내놓았던 提案하고 거의 같은 것 같은데 그대로 理解해도 좋습니까?

北(박영수) : 예, 아마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1次 「訪問」, 1985年度에 進行한 우리 1次 「訪問團」交換때의 合意書案에 充實했습니다. 그때 合意書가 우리가 같이 合意한 것이니까.

南(宋榮大) : 하여튼 討論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리側 첫 發言을 이야기 하도록 하죠.

〈우리 側 첫 發言〉

北側代表 여러분!

우리는 第11次 南北赤十字會談 開催問題와 第2次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問題를 協議하기 위해 오늘 네번째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차례의 接觸을 통하여 쌍방은 本會談 재개날짜를 비롯하여 第2次 訪問團의 교환날짜와 規模, 訪問地 등에 관해 서로의 立場을 밝히고 활발한 討論을 벌였습니다.

그 結果 지난번 接觸에서는 第2次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의 교환날짜는 오는 12月 8日로 하고 第11次 南北赤十字會談의 개최날짜는 12月 15日로 하자는데 合意를 이룩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踏步狀態에 있던 實務代表接觸이 거둔 첫 成果였으며 離散家族問題 解決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는 重要한 契機를 마

런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雙方은 第2次 「訪問團」 交換事業과 關聯하여 訪問地와 規模問題, 藝術團의 交換公演問題, 기타 細部推進節次 등에 대해 아직도 意見差異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狀況에서 지금 南北離散家族을 비롯한 온 거래는 우리의 實務代表接觸에 커다란 關心과 期待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接觸이 반드시 成功을 거두어 이들에게 기쁜 消息을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는 第2次 「訪問團」 交換이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온 時日의 촉박성을 考慮하여 오늘 接觸에서 未解決問題에 대한 원만한 妥協을 봄으로써 實務代表接觸을 마무리지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雙方이 자기의 主張과 立場만을 고집하지 말고 大乘的 見地에서 相互 尊重과 互讓의 精神을 發揮함으로써 合意點을 적극 모색하는 姿勢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見地에서 나는 實務代表接觸을 어떻게 하든지 하루빨리 妥結짓고 第2次 訪問團交換事業과 第11次 南北赤十字會談 開催를 雙方이 合意한대로 12월에 원만히 實現시킴으로써 거래의 念願에 부응하려는 立場에서 다음과 같은 劃期的 修正案을 내놓고자 합니다.

첫째로, 訪問團의 規模問題 입니다.

이 問題와 關聯하여 우리 側은 故鄉訪問團 300名, 藝術公演團 50名을 提議한데 대해 貴側은 故鄉訪問團 300名, 藝術公演團 300名으로 構成할 것을 主張하였습니다.

雙方의 案을 比較하여 볼 때 故鄉訪問團의 規模에 있어서는 300名으

로 하는데 이미 提案上 意見의 一致를 보이고 있고 다만 藝術公演團을 50名으로 할 것인가 300名으로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만 意見差異가 남아 있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 貴側은 지난번 接觸時 서로 便利하게 構成할 것을 提起한 바 있으나 우리側은 相互主義精神에 따라 같은 數로 構成하는 것이 合理的이라는 立場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경우 問題解決의 判건은 우리側의 50名 案과 貴側의 300名 案 사이에서 數的 隔差를 어떻게 調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雙方이 다같이 조금씩 讓步하는데서 妥協點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側은 離散家族 當事者들의 意思 등 여러가지 면에서 50名이 適合하다고 생각하지만 貴側 立場을 考慮하여 100名으로 늘릴 수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 같은 우리側의 折衷案은 第1次 「訪問團」 交換時보다 藝術團構成을 發展的으로 해야 한다는 貴側 主張과 第2次 「訪問團」 構成이 故郷訪問團 中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側 立場이 다같이 反映된 것으로서 貴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訪問團의 訪問地와 訪問期間, 藝術團의 交換公演 및 細部 推進節次 등 그밖의 모든 問題는 第1次 「訪問團」 交換事業時의 先例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故郷訪問團의 訪問地와 關聯하여 우리側은 離散家族들이 自己 故郷까지 가서 血肉을 相逢하며 省墓도 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 提議한데 비해

貴側은 서울과 平壤으로 할 것을 主張하였습니다.

訪問期間에 대해서 우리側은 故鄉訪問을 前提로 5泊 6日을 提議하였으나 貴側은 3泊 4日의 日程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藝術公演團의 交換公演에 있어서도 우리側은 第1次 訪問團交換事業時의 先例를 準用하여 實施할 것을 提議하였으나 貴側은 그때와는 다른 內容의 主張을 提起하였습니다.

이밖에도 雙方間에는 訪問團 團長의 格을 비롯해 故鄉訪問團構成 對象者選定, 相逢方法 등에 관해서도 見解差異를 나타내었습니다.

우리側은 以上の 問題들에 대해 雙方의 意見과 立場이 이미 충분히 開陳된 만큼 더이상 討論과 論爭을 벌여보아야 더좋은 結果를 生産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간에 合意했고 또 겨레앞에 約束한 오는 12月 8日부터 第2次 訪問團交換事業을 着手하려고 할 경우, 이러한 未合意의 問題를 놓고 알가알부하면서 계속 時間을 끌수는 없는 것이며, 大局的 見地에서 決斷을 내려야 할 時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雙方의 立場과 現實的 可能性을 다같이 考慮하면서 손쉬운 方法을 찾아야 하며, 그것은 雙方 모두에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先例方法外에 더좋은 代案이 없다는 判斷下에 이번에도 第1次 「訪問團」 交換事業時와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訪問地問題에 있어 離散家族들의 要求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平壤으로 讓步한 것은 實務代表接觸의 膠着局面을 打開하여 第2次 「訪問團」 事業을 기필코 成事시키려는 立場과 本會談의 議題 5個項 事業이 가까운 時日內에 實踐에 옮겨지리라는 期待에서 취해진 것임

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以上과 같은 見地에서 나는 우리側 修正案 內容을 中心으로 우선 一括妥結를 본 다음 綜合的인 合意書作成에 들어가기를 期待합니다.

이와 關聯 우리側이 準備한 合意書案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자 합니다.

第 11 次 南北赤十字會談 開催와 第 2 次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訪問에 관한 合意書

1989年 11月 8日 開催된 第 4 次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에서 雙方은 第 11 次 南北赤十字會談의 開催問題와 第 2 次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訪問 問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첫째, 第 11 次 南北赤十字會談 開催問題

1. 第 11 次 南北赤十字會談은 1989年 12月 15日 平壤에서 開催한다.
2. 會談議題를 비롯하여 代表團構成·會談運營節次·代表團의 往來方法 등 本會談 進行에 다른 其他 問題는 先例대로 한다.

둘째, 第 2 次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問題

1. 訪問團의 名稱

訪問團의 名稱은 各其 便利한대로 부르되, 大韓赤十字社側은 「第 2 次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으로 한다.

2. 訪問團의 構成 및 規模

가. 訪問團은 雙方 赤十字社中央機關 責任者(大韓國民 大韓赤十字社

總裁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赤十字會 中央委員會 委員長) 를 團長으로 하여 離散家族 故鄉訪問團·藝術公演團·取材記者 그리고 支援人員으로 構成한다.

나. 訪問團의 規模는 赤十字社中央機關 責任者 1名을 包含하여 各 其 總 471名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 (1) 離散家族 故鄉訪問團은 雙方 各其 300名으로 한다.
- (2) 藝術公演團(製作陣과 出演陣)은 100名으로 한다.
- (3) 取材記者는 30名으로 한다.
- (4) 支援人員은 40名으로 한다.

여기 取材記者數·支援人員數는 우리가 貴側 主張을 考慮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3. 訪問團 交換方法

訪問은 同時 交換訪問 方式으로 한다.

4. 訪問時期

交換訪問 時期는 1989年 12月 8日~12月 11日(3泊 4日) 로 한다.

5. 訪問地

서울과 平壤으로 한다.

6. 相逢의 周旋과 範圍

가. 雙方은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人員들에 대해 赤十字 人道主義 原則에 따라 그들의 家族과 親戚을 찾아서 相逢을 시켜주는 便宜를 提供한다.

나. 相逢의 範圍에 있어 直系 尊·卑屬은 헤어질 당시의 家族과

그 이후에 出生한 家族을 包含하고, 親戚의 경우 傍系는 8寸, 妻·外家は 4寸으로 하되, 本人의 希望에 따라 生死·所在가 確認된 親戚도 包含된다.

7. 藝術公演團의 公演場所 및 公演回數

가. 公演場所는 招請側이 誠意를 가지고 提供하는 施設이 完備된 劇場으로 한다.

나. 公演回數는 總 2回로 한다.

8. 公演內容

가. 公演은 民族傳統 歌舞를 중심으로 하며, 相對方을 誹謗·中傷, 자극하지 않는 內容으로 한다.

나. 公演時 司會者는 政治性を 배제하고 相對側을 誹謗·자극하지 않는 原則下에 公演種目만을 紹介할 수 있다.

9. 公演프로그램 交換 및 公演場 事前踏査

가. 公演프로그램은 訪問 3日前에 相對側에 通報하도록 한다.

나. 演出上의 構成問題, 裝置轉換問題, 音響·照明·效果問題 등 公演 準備에 필요한 事項을 事前 點檢하기 위해 赤十字人員 2名 과 公演技術人員 3名이 1989年 11月 28日부터 30日까지 公演場을 事前踏査토록 한다.

10. 公演時間

120分 정도로 한다.

11. 身邊安全保障

訪問 7日前에 關係當局의 身邊安全保障 聲明을 發表하고 그 文本을 상대측에 手交한다.

12. 輸送 및 通信

가. 板門店을 넘어 자기측에 들어오는 訪問團의 人員, 裝備 및 其他 필요한 物品의 輸送에 대해서는 招請側의 車輛을 利用하도록 한다.

나. 訪問期間中 서울·平壤間 行랑을 1日 2回 運用한다.

다. 訪問期間中 業務連絡 및 取材記者 送稿用으로 현재 架設되어 있는 南北直通電話 20回線을 利用하며, 필요할 경우 雙方 合意에 따라 增設한다.

13. 記者의 取材活動

招請側은 訪問側 記者들의 離散家族 相逢現場에 대한 取材活動을 保障하고 取材에 필요한 諸般 便宜를 提供한다.

14. 通過場所와 通過節次

通過地點은 板門店으로 하고 通過節次는 南北赤十字會談의 慣例에 따른다.

15. 訪問者名單 通報時期

가. 故鄉訪問團의 名單은 訪問 10日前에 相對側에 通報한다.

나. 藝術公演團·取材記者 및 支援人員의 名單은 訪問3日前에 相對側에 通報한다.

16. 故鄉訪問者名單 作成樣式

가. 故鄉訪問團 名單의 訪問者欄에는 訪問者의 姓名·性別·年齡·故鄉·訪問對象者와의 關係를 記載하고 寫眞을 添附한다.

나. 故鄉訪問者 名單의 訪問對象者欄에는 訪問對象者의 姓名·性別·年齡·故鄉·헤어진 때를 記載하고 기타 家族찾기에 도움이

되는 資料를 添附한다.

17. 藝術公演團・取材記者團・支援人員 名單作成

故郷訪問者 이외의 訪問團 構成人員 名單에는 姓名・性別・職位・
參加區分을 記載하고 寫眞을 添附한다.

18. 訪問者の 標識 및 證明書 所持

가. 故郷訪問團・藝術公演團・支援人員은 赤十字徽章에 自己側을 表
示하는 內容의 標識를 附着한다.

나. 記者는 訪問團 標識外에 記者완장을 着用하며, 其他 事項은 南
北赤十字會談의 慣例를 準用한다.

다. 訪問者는 自己側 赤十字社 總裁(委員長)가 發行하는 身分確
認 證明書を 所持한다.

19. 滯留日程

訪問 7日前에 滯留日程表를 相對側에 手交하고 日程을 協議・
決定한다.

20. 其 他

가. 訪問團이 相對側 地域을 訪問中에는 相對側의 案內와 秩序에 따
르도록 한다.

나. 宿食・通信 등 訪問團 人員들에 대한 便宜는 招請側에서 提
供한다.

다. 招請側은 公演開幕前 訪問側이 公演舞臺에서 事前演習을 실시
할 수 있도록 便宜를 提供한다.

라. 公演舞臺裝置의 補助人員 및 一般 照明機具 提供 등 其他 公
演에 關聯되는 問題는 招請側에서 便宜를 提供한다.

마. 公演프로그램은 公演하는 側이 製作・携帶하여 配布하도록 한다.

以上 우리 側의 合意書 案이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側의 修正案 內容에 合意를 본 다음 이를 基礎로 合意書 作成에 들어가기를 期待합니다.

北(박영수) : 수고했습니다.

南(宋榮大) : 박선생 ! 이렇게 貴側案하고 우리側案을 비교해 보니까 몇 가지 點에서는 共通點도 있고 또 몇가지 問題에서는 意見差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討論을 效率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늘 중에 매듭을 짓기 위해서 討論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規模問題가 重要하니까 規模問題를 먼저 좀 意見交換을 하고 그 다음에 規模問題를 除外한 餘他問題를 一括討議해서 妥結하는 方法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北(박영수) : 宋先生 이제 合意書案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從前보다는 그 래도 前進이 좀 있구만요.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南(李柄雄) : 조금 있는게 아니라 우리는 상당히 아주 많이 讓步를 했습니다, 오늘.

北(박영수) : 제가 또 제 자랑을 하면 안되지......

南(李柄雄) : 아니지 우리는 讓步를 많이 했는데 貴側案이 지난번 얘기한 그대로 나와서......

北(박영수) : 그래서 내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우선 말씀드리기 前에 몇 가지 問題를 놓고 確認을 하고 이제 그 提案을 들었으니까 또 우리

提案을, 合意書案을 넘겨주었고.

우선 첫번째로 藝術團과 故鄉訪問團의 訪問地를 平壤과 서울로 한다는 것은 이제는 合意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記者數와 隨員數가 提案上에서 合意, 合意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뭐 其他 사소한 이런 實務節次問題들은 우리가 이미 1次 藝術團과 故鄉訪問團 交換때의 前例에 準해서 合意書案을 提起했는데 역시 그쪽에서도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問題도 역시 큰 問題 없고 다 合意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意味에서는 상당한 前進입니다.

또 그런 意味에서 두가지 人道的 事業, 第1次 藝術團·故鄉訪問團 交換事業과 本會談 再開問題, 第11次 赤十字會談 이것이 今年內에 成事될 수 있는 展望이 보인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提案上에서 差異나는 問題들을 몇가지 하나씩 確認해 보면 問題는 역시 藝術團 規模問題입니다.

藝術團 規模問題가 아직도 未解決 問題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藝術團 公演의 實況中繼問題 이것이 지금 未解決問題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訪問團 責任者를 各其 赤十字團體 責任者로 하겠는가, 그쪽에서는 責任者로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는 副責任者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그건 後에 討論을 할 때 왜 우리가 副責任者로 했느냐 하는 것은 그때 說明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討論을 어쨌든 오늘로서 이것 結束을 지어야 되

니까. 이제는 더 물리설 時日도 없고. 그래서 한 問題씩 討論하는데는 어디에다 中心을 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하는가 하면 첫째로 藝術團 規模問題 두번째로 藝術團의 實況中繼, 公演實況中繼問題. 이 두가지 問題만 解決되면 나머지 問題는 이젠 큰 問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藝術團 規模問題와 關聯해서 내가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接觸에서 藝術團 規模를 어떻게 하자고 했는가 하면 50名으로부터 300名까지 範圍안에서 각기 便利한대로 하자. 이 提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 提案을 내놓았는가? 우리는 오늘 會談에 나오면서 솔직한 내 심정을 말씀드리면 이 問題는 오늘 會談에서 우리가 내놓은대로 合意가 될거다. 우리는 그걸 確信하고 나왔습니다.

確信하게 된 理由는 제가 基本發言에서 간단히 言及했지만 지난번 接觸마감때에 宋首席代表께서 하나의 意見을 내셨다하고 藝術團 規模는 互便宜主義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는 300名 그쪽에서는 50名하겠다. 이런 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가 後에 물론 조금 討論을 거쳐서 그때에는 아니 그것이 案이 아니라 하나의 反論하는 方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修正하는 立場을 취했지만 그러나 일단 首席代表의 資格으로서 公式會談席上에서 하나의 案을, 案으로서 提起되었던 問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貴側에서 討議하고, 慎重히 討議하고 내놓은 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주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받아주자고 생각을 해서 이 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거 合意될줄 알

있다는 우리의 솔직한 생각을 제가 말씀 하나드리는 것이고.

둘째로 藝術團 規模問題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쪽에서 100名으로 하자 50名을 늘였는데 어딘가 모르게 우리는 무슨 印象을 받는가 하면 故鄉訪問團을 위주로 하고 藝術團을 副次的인 것으로서 그 意義를 弱화시키는 것으로서 이런 立場에서 지금 問題를 考察하고 있다. 이런 印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思考方式이 이것이 지난 1次 訪問團 交換때의 前例로 보나 또 雙方 사이에 合意되고 있는 이런 狀況에 비추어 볼 때 그런 것은 正確한 말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원래 이 藝術團 交換問題 그리고 故鄉訪問團 交換問題가 提起된 경위를 놓고 보면 이것이 절대로 여기서 主從關係로 設定될 수 없고 더욱이는 提起될 當時의 狀況으로 볼 때 이것이 藝術團이 원래「主」이고 故鄉訪問團이「從」으로서 提起된 것이다.

내가 이것을 資料的으로 論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 이제 우리 代表들도 얘기를 하겠는데 藝術團과 故鄉訪問團이 어떻게 提起되었는가? 조금 우리 歷史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우리 다 當事者들이니까.

바로 이자리에서부터 그 問題가 論議되었는데 1984年 11月 20日인가? 本會談 再開 問題를 討議하기 위한 實務接觸 이자리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宋先生도 參加하고 나도 參加하고 거기서 討議될 때에 우리가 赤十字本會談을 再開하는 마당에서 本會談의 氛圍氣를 좋게하기 위해서 藝術團을 各其 帶同하고 나가서 藝術公演을 하도록 하자. 우리가 이案

을 提起했습니다.

그때 그쪽 團長으로 나왔던 趙哲華先生이 무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다』 趙先生이 말한 그대로 입니다, 지금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러면 그 事業을 하는데는 아무런 問題로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事實上 合意가 되었던 問題입니다.

그런데 그 發言을 한 때로부터 1~2분이 지나지 않아서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

이것은 자기 個人 생각이고 가서 또 協議해야 할 問題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서는 이걸 合意하지 말고 本會談, 8次 本會談에 가서 論議하자. 그래서 그때 그 問題가지고 한참동안 우리 宋先生이랑 아웅다웅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뭐 어떻겠습니까? 首席代表 資格으로 同意를 했다가 무슨 事情이 있어서 어쨌든 本會談으로 最終 合意를 넘겼으니까.

그런 條件下에서 우리도 괜히 거기에 同意를 주어서 本會談에서 討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本會談에서 우리가 그 問題를 提起했을 때에 그때 李榮德 首席代表, 趙哲華次席代表, 鄭鎔碩代表를 위시해서 여러 代表들이 무엇을 한 걸 같이 얘기했는가 하면 赤十字總裁가 그래도 相對側 地域을 訪問하면서 藝術團을 帶同하는데 어떻게 離散家族의 苦痛을 덜어주는 事業을 責任진 赤十字責任者들이 相對側 地域을 訪問하는데 藝術團만 데리고 가겠는가? 故鄉訪問團 成員도 離散家族들도 몇명 데리고 가야된다. 이걸 主張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다가, 그러면 좋다 두가지 事業을 다하자. 두가지 事業을 다하자 하되 이 事業을 상징적인 事業으로 하자.

바로 이것이 藝術團과 故鄉訪問團 交換事業이 上程된 경위와 討議된 結果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藝術團을 副次的인 것으로 하고 故鄉訪問團을 「主」, 基本的인 事業으로 主的인 事業으로 한다는 論理는 이견 서지 않는다.

이 論理는 지금까지 討議된 經緯로 보나 雙方이 양해한 事項에 견주어서 이것은 不正確하다는 것을 내 재삼 明白히 하는바 입니다.

그래서 重要하게는 過去 經緯를 이러니 저러니 캐는것 보다도 前번 接觸 마감때에 宋榮大先生께서 藝術團 規模를 便宜主義的으로 하자는 案을 提起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案을 尊重해서 또 그것이 우리의 立場에도 符合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 案을 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저 要求하고 싶은 것은 이 藝術團 規模問題는 우리가 내놓은 案대로 또 우리가 내놓은 것 뿐아니라 그쪽에서도 내놓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合意하면 어떻냐 그런 생각입니다.

南(宋榮大) : 어때, 말씀 다 하셨습니까?

北(박영수) : 우선 그 問題만, 訪問團規模라고 이젠 하지 말고 藝術團 規模問題 이 討議만 합시다.

南(宋榮大) : 우선 지금 박선생이 지난번 接觸時 나의 發言을 크게 歪曲하고 있는데 대해서 참으로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貴側에서 그때 故訪團・藝術團 構成과 關聯해서 便宜主義를 내놓았을 때에 내가 그러한 發想으로 問題를 본다면 訪問地 問題에 있어서도

便宜主義로 하자는 거냐 하고 反論을 提起했습니다. 質問을 提起했어요.

그래서 이 問題가지고 그때 討論이 되었고 결국 그때가서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側 提案이 아니고 하나의 反論이다』고 제가 分明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박선생이나 옆에 김선생 뭐라고 했냐하면 『아, 우리는 提案인 줄 알았더니 反論이었구만요』 그말까지 했어요.

그러고 내가 그때 討議末尾에 가서 訪問團 規模에 관한 우리의 立場은 「南北相互主義原則에서 하자」 하는 事實을 分明히 못박았습니다. 이것은 會議錄에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연한 過去事實을 갖다가 너무 一方的으로 歪曲해서 하지는 말아 주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고.

다음 또 하나 지금 박선생이 故訪團과 藝術團 들을 놓고 어느 것이 「主」고 어느 것이 「從」이나 이걸 갖다가 지금 過去 經緯까지 하나하나 들추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 역시 事實과 다릅니다.

왜 다르냐? 우선 第1次 「訪問團」事業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그 背景을 보며는 貴側도 아는 바와같이 지난 8次會談때에 雙方에서 光復40周年을 기해 가지고 우리側에서는 故鄉訪問團 交換하자, 貴側에서는 藝術團交換하자 이 두개의 意見이 合意돼 가지고 결국 第1次 「訪問團」事業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第1次 「訪問團」事業은 光復40周年을 기해서 한다. 바꾸어 말하면 1985年 1回性으로 提案을 雙方이 했고 또 1回性 事業 實踐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第2次 「訪問團」事業이 어떻게 해서 提起가 되었느냐? 이

것은 우리側이 먼저 提起한 겁니다.

記錄이 말해주는 바와같이 지난 10次會談때, 그러니까 85年 12月에 열린 10次 會談때 우리側에서 第2次 「訪問團」 事業을 하자하고 提議했습니다.

그때는 「訪問團事業」 이렇게 表示하지 않고 第2次 離散家族 故鄉 訪問團 交換事業을 또 한번 하자. 언제? 이듬해 舊正을 기해서 하자. 이렇게 우리가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貴側에서 뭐라고 했느냐. 『故鄉訪問團 事業은 大會談 議題에 다 包含되어 있으니, 本會談 議題만 妥結되면 自動적으로 解決될 問題니까 第2次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事業할 必要없다』고 分明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貴側이 지난 5月 31日날 와가지고 우리한테 便紙를 보내서 第2次 藝術團·故訪團 問題 討議하자 이렇게 나온거예요.

이것이 分명한 하나의 事實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선생이 이걸 너무 꺼꾸로, 一方的으로 解釋을 하나기 나로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 問題를 가지고 이 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자는건 아닙니다.

結局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같은 立場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雙方의 案을 놓고 어떻게 하면 意見을 接近시키느냐? 이걸 우리가 摸索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藝術團 規模와 關係해서 박선생이 50名에서 300名 範圍內에서 각기 便利한대로 定하자

이랬는데, 그럼 貴側에서 藝術團 規模를, 數字를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北(박영수) : 300名 해보자는 겁니다.

南(宋榮大) : 300名요? 結局 그러면 故鄉訪問團 300, 藝術團 300으로 하자는 것이 貴側 立場아닙니까? 그렇죠?

北(박영수) : 예.

南(宋榮大) : 우리는 내가 첫 發言에서 故鄉訪問團 300, 藝術團 100을 내놓았어요.

結局 그러면 結論은…….

北(박영수) : 總 數字가 달라진다. 그거겠구먼요?

南(宋榮大) : 結論은 貴側에서 藝術團 300, 우리는 100 그렇게 되면 總 數字도 달라지지요.

北(박영수) : 달라지겠지요.

南(宋榮大) : 그런데 이것은 나는 새로운 修正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그 理由를 말씀드리지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相互主義原則에 어긋납니다.

相互主義라고 하는 것은 우리 雙方 會談에서 우리가 尊重해야 될 原則이에요. 그리고 相互主義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訪問團」을 構成하는데 있어서 總 規模面에서 同數로 돼야 되고, 또 同一한 性格의 事業間에는 同數가 適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貴側이 내놓은 이 案이 그렇게 現實的인, 合理的인 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왜 藝術團을 100名으로 내놓았느냐 그 立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것 大脈絡이라고 하는 것은 過去 우리가 提示했던 50名에서 倍로 불린겁니다. 왜 불렀느냐? 지난번 接觸때 貴側에서 藝術團 數字와 關聯해서 第1次 「訪問團」 事業때 보다 發展的으로 해야 한다는 主張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 김선생님께서 『南側에서 第1次 事業때 보다 故訪問團 數를 몇倍로 늘리고 記者數를 몇倍로 늘리고 隨行員數를 몇倍로 늘리면서 무엇때문에 藝術團 數字를 늘이지 않았느냐』하는 質問을 提起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貴側의 立場을 우리가 充分히 考慮해 가지고 우리 當初 案보다도 두 倍로 불렀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貴側에서 第2次 「訪問團」 事業의 性格을 어떻게 規定했느냐 하면 「象徴事業」이라 規定했습니다만 나는 「象徴事業」이라고 하는 表現 보다 는 「示範事業」이라고 하는 表現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일단 貴側의 主張대로 象徴事業이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내놓은 藝術團 數字 100名은 充分히 「象徴性」을 發揮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0名도 象徴性으로 充分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名으로 불렀습니다.

또 지난번 接觸때 貴側에서 300名을 主張하면서 그 論據의 하나로 貴側 赤十字 藝術人들의 意思를 들어보니까 300名으로 해야 되겠다더라 그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지난번 接觸 끝난 後에 돌아가서 우리 赤十字藝術人들 만나 보았습니다. 또 離散家族代表들 만나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離散家族들과 關聯해서 우리側에 團體가 몇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團體가, 아마 貴側이 아시는 바와같이 「1千萬 離散家族再會推進委員會」라

고 하는 團體가 있습니다. 또 「以北5道民會」라고 하는 團體가 있어요.

이분들 意思是 『이 赤十字會談, 人道主義的인 次元에서는 어디까지나 故鄉訪問團이 中心이 되어야 되고 藝術團 關係는 別個의 會談에서 別個의 事業으로 해야 된다』하는 것이 支配的 意見입니다.

내가 그 根據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千萬 離散家族再會推進委員會」하고 「以北5道民 中央聯合會」 共同聲明이 나왔어요. 이 聲明書 가운데 3가지를 決議를 했는데 첫번째는 이런 內容입니다.

『訪問團의 人員構成 比率은 당연히 故鄉訪問團에 우선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당연히 故鄉訪問團에 우선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의 決議事項은 『離散家族들이 直接 自己의 故鄉을 찾아가서 先山에 省墓하고 親戚·親知들을 만나 볼 수 있도록 訪問希望地域을 開放해 줄 것을 간곡히 要望한다』

셋째, 決議事項은 『藝術公演團 相互交換은 離散家族 問題와는 直接的으로 關聯이 없는 問題이므로 藝術公演團과 關聯된 問題로 因하여 故鄉訪問 交換實現이 障礙를 받아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本格的인 南北間 藝術交換은 別個의 事業으로 別途의 會談을 통해 妥結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세가지를 決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代表들이 저를 만났을때 이 세가지 事項을 強力히 要求했습니다.

離散家族들의 意思가 이러함에도 不拘하고 우리가 50名에서 100名으로 불렀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讓步입니다. 대단한 讓步예요.

또 지난번 貴側 赤十字藝術人들 경우가 300 명이 좋다하고 있는데,내가 우리側 藝術人들한테 물어보니까, 「象徵事業」 더군다나 赤十字 人道主義事業 次元에서라면 50 명이 좋다 그거예요. 그러나 相對側에서 굳이 그걸 늘이는 것을 願한다면 아 우리側에서 100 명까지도 좋다.

그러나 100 명이라고 하는 數字는 사실상 南北文化交流次元에서 할 수 있는 規模라고 하는 사실은 認識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지난번 貴側에서 300 명規模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뭐 「國際慣例」를 들어가지고 300 명이 適合하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제가 돌아가서 國際慣例를 좀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一般的 國際慣例가 다 100 명 內外입니다. 물론 特別한 例外事項은 있어요. 그러나 普遍的 基準値는 100 명 內外예요.

지난번 LA 「올림픽」 때 우리側에서 LA 「올림픽」 準備委員會의 要請에 의해서 藝術團을 보냈는데 그때 75 명을 보냈습니다. 75 명을 보내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公演잘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強調했습니다마는 이번 藝術團交換이 어느 次元에서 이루어지는거나 하는 것을 바로 봐야 됩니다. 이걸 어디까지나 赤十字人道主義 次元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赤十字人道主義 次元의 性格에 맞게끔 規模를 定하자 하면 100 명이면 이것은 차고 넘치는 數字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이야기를 일단 整理를 하겠습니다.

南北韓에 規模問題 定하는데 있어서는 相互主義가 適用이 되어야 됩니다. 이 相互主義는 總數面에서도 適用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同

一한 性格의 事業間에는 이 相互主義가 적용되어야 된다 하는 것 하고
지금 우리側 離散家族들 意思, 우리 赤十字藝術人들의 어떤 意思, 또 國
際慣例 이런걸 통틀어 놓고 볼때에 지금 우리가提起한 100名의 숫자
는 아주 이것은 最大值다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北(박영수): 예. 宋先生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 會談때 내 놓았던 거
를 우리가 歪曲했다 그러는데 유감스럽다고 그러고, 오히려 그말을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必要하다며는 들려줄 用意가 있기 때문에 錄音도 그
대목을 해가지고 왔는데 분명히 그때 宋先生은 뭐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南北間에 지금까지 人道的 事業을 해 왔는데서는 不文律의 原則이 하나
있다. 그게 뭐인가 하면 相互便宜主義대로 하는 거다. 그 相互便宜主義대
로 해온 거기에 留念을 해서 내가 意見을 하나 내겠다. 그래서 藝術團
을 相互便宜主義대로 構成하자. 그러면 우리는 300名이 되고 그쪽은 50
名이 된다. 이걸 뭐 錄音이 다 돼 있으니, 우리 錄音으로 記錄을 하
니까 이거야 뭐 어떻게 다르게 말할수야 없겠지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歪曲했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내가 유
감스러운데요. 나보고 歪曲했다고 하니까…… 그게 그 問題가 하나 있고,
간단히 過去事지만 그건 명백히 해야 되고 그것이 앞으로의 會談에서도
또 會談들에서 이게 分明히 돼야 되겠기 때문에 1次 藝術團 故鄉訪問
團 交換事業때 合意事項이 분명히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象徴的
인 事業으로 合意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實踐이 된거고 그런데 이제
와서 宋先生도 示範事業이라고 하면 좋겠지마는 일단 象徴的인 事業으
로 한단는데 同意하는 立場을 表示했기 때문에 그 問題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南(宋榮大) : 그건 同意가 아니고 貴側이 主張대로 한다고 할 경우에….

北(박영수) : 그렇게 하면 그게 同意지 뭐 다른건가?

南(宋榮大) : 아니 다르지, 그건 분명히 해야 돼요. 同意는 아니예요.

北(박영수) : 아까도 말했지만 示範的인 事業이라는 건, 自由來往의 示範事業이라는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比喩해서 말하며는 공발에 가서 두부를 찾는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自由來往의 示範事業을 어떻게 해요? 自由來往 지금 한참 討論中인데, 提案을 내놓고 있는 段階인데…….

自由來往이 다 本會談에서 合意된 다음에 『이제부터 自由來往 實施합니다.』 이렇게 하는 段階에 가서 그래도 이제 北과 南이 近 45年 동안이나 갈라져서 서로 격폐돼서 살아온 조건에서 이게 아무래도 하는데 무슨 혹시 다른 어떤 問題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小規模로 示範的으로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어떤 不便한 점이 있거나 이러면 다시금 그걸 修正·補完하기 위해서 示範事業을 하는게, 그때가서 示範事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自由來往의 示範事業은 지금 段階에서는 그건 말도 할 수 없는 거다.
내 그건 명백히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8次, 10次會談때 그쪽에서 2次藝術團·故鄉訪問團 交換事業을 하자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反對했다 그랬는데, 가서 會談錄을 들춰보시요. 反對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때 그거를 그만두자 그랬는가 하며는 우리 그전에 여러 차례 宋先生도 얘기를 하고 峻熙先生, 柄雄先生 다같이 얘기를 했지만 그 때로서는 한두차례의 本會談이면 自由來往을 實施될 수 있을 段階예요 그

런데 그런 狀態에서야 무엇때문에 그런 또 다른 事業을 펴 놓겠는가? 本會談에 힘을 集中해서 自由來往 實施하는게 基本課業이다. 그래서 우선 그 討議를 우리가 빨리 誠實히 해 나가자 그런 意味에서 그런거고 自由來往이야 우리가 自由來往 하자는데 아닙니까?

조금더 거슬러서 올라가면 豫備會談때 柄雄先生이랑 다 아시지요? 議題討議할 때 自由로운 原則을 議題 5個項에다 自由로운 原則을 明記하자고 하는거 누가 提起했습니까? 우리가 提起했지요. 8次會談때 自由來往問題 누가 提起했어요? 우리가 提起했지요.

自由來往 이거는 우리의 人道主義的 事業에서 最高의 人道主義가 우리는 統一로 보는데 그 밑에 目的이라고 하면 自由來往이요. 人道的 事業에서……. 거기에는 추호의 의심을 가질 餘地도 없다. 내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 宋先生 離散家族代表들 만나고 왔다 藝術人들도 만나고 왔다 하는데 離散家族 代表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사람들로서는 무슨 意見을 提起할 수 있는가.

『故鄉訪問團 規模를 이번엔 좀 크게 해 주시요, 故鄉가게 해 주시요』 이거는 提起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사람들이 주제넘게 『藝術團은 이견 없애든가 작게 해 주시요』 난 이견 도저히 理解될 수 없어요 이견 이럴수가 없어, 그렇다면 그 사람들 自體가 問題야, 그 사람들 自體가 問題야.

南(宋榮大): 그건 離散家族들 意思를 冒瀆하는 이야기입니다.

北(박영수): 冒瀆하는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좋지 않은 사람들 이라고 봅니다.

離散家族問題에 해결과 關聯한 意見이야 자기네가 얼마든지 提起할 수 있겠지만 자기 事業權限 밖의 問題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거는 그건 있을수도 없는거고 그건 모르겠어요.

南(李峻熙) : 그 離散家族들이 故鄉을 가자는 것이 그 사람들의 念願이지 곳보러 가자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北(박영수) : 아니 이제 宋先生이 내가 말한걸 峻熙先生이 또 잘 理解를 못하는구만. 宋先生이 그 사람들이 『藝術團은 이견 다른 次元에서 해 달라』 그런 意見을 말한다 그러길래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좋지않은 意見이기 때문에, 意見은 백사람이면 백사람. 천사람이면 천사람 모아 놓았을 때 똑같은 意見을 낼 수 없어요. 우리는 必要하고 그런 事業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意見을 들어야지 反對意見 들어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問題도 그건 妥當하지 않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한가지 내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藝術團 좀 크게 하는거 왜 그렇게 反對를 해요? 왜 극상 늘이자는데 50名이에요?

내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藝術人들도 그렇고 온 겨레가 말이 지요 겨레가 北과 南 사이에 44年동안 격폐되어 있거든요. 또 거기에는 서로 不信, 誤解 지어는 同族이면서도 敵對視까지 하는 이런 狀態란 말입니다.

이제는 民族和解, 和合, 團合을 圖謀하는 段階로 넘어가자 雙方이 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깐 그건 뭐 그게 實踐으로 되면 좋은거고 그러자면 뭐가 先行되어야 하느냐? 서로 北이 南을 알고 南이 北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데서 完全히 開放, 自由來往, 分界線이 터지지 않는 이

상에는 서로 아는데서 이 藝術團, 이게 重要한 겁니다.

왜 그런가면 藝術이란게 어떻게 됩니까? 當代 社會現實을 反映한것이 거든요? 藝術하나 보게 되면 아, 그 社會가 어떤 社會다 그 社會 文化水準이 어떻게 生活感情이 어떻게 이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意味에서 또 藝術人들은 藝術人대로 慾心이 있잖아요. 자 南쪽에 나가서 이거 우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또 그쪽 社會 藝術人들도 마찬가지로 가지일 거예요.

우리를 좀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最上의 水準에서 準備된 藝術을 한번 가지고 나가보자 그 사람들의 要求가 결코 나쁘지 않지요. 좋지요, 좋으면 좋았지 나쁠거는 없지요.

그런 意味에서 그렇게 좀 이번엔 통이 크게 해 보자 그러는데 역시 지금 겨우 늘렸다는거 뭐 300名線에 좀 接近해서 늘려 놓았으면 좋겠는데 통이 좀 작단 말이예요. 통이 좀 크게 해 보자 이겁니다.

北(정덕기) : 理解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이태까지 말을 안했는데 한마디 좀 얘기를 합시다.

南(李峻熙) : 정선생이 藝術團을 또…….

南(宋榮大) : 專門家가 잘 압니다.

北(박영수) : 참 納得이 좀 되도록 하자고 그래요.

南(宋榮大) : 말씀하세요.

北(정덕기) : 왜그러냐 하면 宋先生이 우리 提案놓고 좀 歪曲됐다고 이야기 하시고 그 좀 섭섭한 얘기를 하시기에 내가 좀 理解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원래 便宜主義的으로 藝術團人員을 定하자고 하는거는 우리가 初期 우

리側에서 300名, 貴側에서 50名 이렇게 定하자는 그 案을 놓고 宋先生이 생각하다가 한 이야기입니다.

웬가하면 처음에 規模問題를 討論하자고 할 때 우리 規模問題는 訪問地問題와 聯關되어 있으니가 訪問地問題를 좀 討論한 다음에 하자. 이렇게 돼서 訪問地問題를 討論하다가 뒤끝에 이야기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便宜主義問題는 宋先生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 하셨다가 다시 修正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便宜主義가 도대체 어떤 뜻이겠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貴側에서 50名, 우리 300名으로 하자 그런 얘기했다가 다시 이제 修正하시기 때문에 便宜主義란 뜻이 어떻겠는가 하고 貴側 辭典을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왜 이걸 이야기 하는가 하면 좀 參考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便宜主義가 있고, 便利主義라고도 할 수 있는데 便利主義 할 때는 便利하고 容易하게 하자 하는 이런 뜻입니다. 서로 좋게 하자는 뜻이고 또 便宜主義라고 할 때는 어떤 事物을 根本적으로 處理하지 않고 一時로 꾸며대는 方法, 이렇게 되어 있더구만요.

우리는 便宜와 便利를 같이 씁니다. 다 이제 便利한 대로 하자 이런 側面. 그런데 아무래도 宋先生이 이걸 根本적으로 處理하지 않고 一時로 이렇게 꾸며대는 方法으로 하자고 하는 말은 안하셨겠지요? 대체로 北南사이에 다 便利하게 하자 이런 趣旨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重要視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歪曲이 아니라 혹시 이걸 뭐 一時로 꾸며대는 方法으로 하자 이렇게 했다면 歪曲이라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便利하게

하는 방법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規模를 50부터 300으로 定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貴側의 案을 拘束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300名이면 貴側에서도 300名 하고 싶으면 하는거고 또 그렇게 늘리기 힘들면 가령 200名이나 100名 할 수 있는거고 問題는 여기서 總規模가 맞지 않는다는이런게 있는데 立場上에서는 서로 互相性이 있는 立場을 봐줬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바를, 拘束하는게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이야기하면서 될 좀 한번 附言하고 싶은가 하면 會談에서 代表들의 發言이 좀 責任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問題討議도 信義있게 될 수 있고 그 과정에 서로 相對方의 立場과 意思를 正確히 理解하고 妥協點을 찾을 수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좀 複雜하게 됐습니다, 複雜하게 되었는데 내 생각에는 사실 失手라고 보기에는 뭐 우리 對話에 參加한 經歷上 그렇게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거고.

또 이렇게 농담이라고 볼 수도 없는거고, 진담이 섞인 이야기 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案을 한번 研究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藝術團事業을 우리가 忽視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歷史的인 事實·資料 이 問題는 둘째치고라도 원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우리가 赤十字 人道主義 事業에서 藝術團問題를 忽視할 問題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藝術問題를 많이 장려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事業을 해서 어떤 事業을 實現한다면 그거는 實質的으로 그 사람들의 不幸과 苦痛을 위로해 주는거고, 또 藝術로서는 그 사람들의 苦痛스런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거고, 이런 側面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赤十字 人道主義 事業에서 團舎과 統一의 問題를 이

렇게 忽視해서는 안될 問題고, 藝術交換事業을 통해서 우리가 民族的 和
解와 團합을 이룩하는데 寄與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認定하는 事實이 아
니겠습니까?

이와같이 1次때 宋先生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건 좋은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藝術團 故鄉訪問團 交換事業을 앞에 놓지 않았습
니까? 本會談보다는…….

그래서 나는 貴側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어딘가 모르게 아까 規模問
題를 이야기 하실때도 故鄉訪問團이 爲主고 藝術團은 副次的인 그런 감
을 받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할 바에는
둘 다 重要的 事業인데, 같이 다 重視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어느 한거
는 忽視하고 어느 한거는 이렇게 하고. 혹시 그와 關聯한 사람들의 意
見을 듣는 경우에도 좋은 方向에서 接受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 뭐 딱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깎을라구 하니까 어딘가 섭섭한 감이 있단 말
입니다.

그래서 規模問題와 關聯해서 우리案을 좀 研究를 해 보시고 이번에 승
의를 봅시다.

南(李峻熙): 오늘 우리 정선생이 지금 그 藝術論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
서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藝術에 대한 얘기는 再論하고 싶
지는 않고 다만 아까 우리 宋代表의 지난번 接觸에서의 말씀에 대한,
아까 充分하게 理解되도록 얘기를 해 드렸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
면 서로의 意見에 대해서 또 表現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잘못 理解
를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 理解를 그쪽에서 했다 하는 얘기는 이미 說明을 드

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 理解했다는 거를 뭐 우리가 굳이 딴 애
기 안해요. 잘못 理解를 한 狀況에서 지금 우리 정선생님 말씀 마따나
지금 그쪽에서 提議한 提案內容이 그러한 理解에 立脚해서 案을 가지고
오신거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그거는 잘못 理解하신거다, 잘못 理解하신
거니까 그 案을 다른 잘못 理解한 그런 바탕에서 새롭게 올바르게 理解
한 그런 內容으로 案을 하나 좀 내 보세요.

北(박영수) : 예, 그렇다면 내가 얘기를 좀 整理를 해 봅시다.

南(宋榮大) : 가만있어요, 내가 좀 이야기 하고 하세요. 아까 두분이 이야
기하고 했으니까.

北(박영수) : 둘이 얘기 했었다는게 問題가 아니에요! 이전 새로운 案을
하나 내졌어요.

南(宋榮大) : 예, 말씀해 보세요.

北(박영수) : 그렇게 하면 나한테 發言權 주겠습니까? (웃음) 기다려 보
라요!

南(李柄雄) : 새로운 案이 劃期的인게 나올까 우리 期待합니다.

南(宋榮大) : 아니, 박선생!, 내가 짧막하게 이야기 한 다음에 새로운 案
을 내세요.

北(박영수) :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南(宋榮大) : 저 지난번 接觸에서 내가 發言한 것을 지금 貴側에서 자꾸
去頭切尾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때 貴側에서 이 訪問團 構成에 便宜主義를 適用하려고 한다면 訪問
地問題에 있어서도 便宜主義로 하자는 거냐 하는 것의 反論을 提起한적
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討論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분명히 이

것은 提案이 아니고 反論이다, 우리 立場은 相互主義로 하자는 것이다.
規模面에서 相互主義로 하자는 것이다 이걸 내가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
니까 이것은 더이상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박선생이 우리側의 離散家族들의 생각이 뭔가 잘못됐다
權限밖의 主張을 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 이 事實을 우리 離
散家族들이 알면은요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北(박영수) : 아니, 일 없습니다. 아니 내 나가서 責任지겠습니다.

南(宋榮大) : 왜냐하면 우리 雙方이 70年代 初부터 지금까지 會談하면서
人道的 問題 解決하는데 있어서 離散家族 當事者들의 自由意思를 尊重하
자 하는데에 合意했습니다.

더군다나 民主的으로 이 問題를 풀려고 그러면 이들의 自由意思 尊重
해야 됩니다. 그러는 意味에서 제가 離散家族代表들을 만났고 그들의 意
思를 여기와서 내가 아까 전했던 겁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지금 우리가 討論이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85년에
이 자리에서 討論하던 것을 되풀이 하고 있는 그런 狀況이기 때문에 나
는 이걸 일단 이걸로 끝내고, 매듭짓고…….

北(박영수) : 아, 끝내자고 내가 벌써 이야기를 했는데 뭘 자꾸 끝내자
고 그리고 그러세요?

南(宋榮大) : 貴側에서 案이 있다니까 한번 들어 봅시다.

北(박영수) : 아, 글썄, 내겠다고 그랬는데 뭘 자꾸 증언부언하니까 내 지
금 그만큼 기다리지 않았어요?

問題는 지금 藝術團 交換의 地位를 어디에 놓느냐 지금 이 問題, 문
칩니다, 結局은.

거, 내 원래 이 얘기를 안하자고 그랬었는데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案을 하나 내겠는데…….

南(宋榮大):자, 우선 結論부터 내시지 뭐, 時間이 많이 갔는데.

北(박영수):아니, 아니, 그거 必要해요. 必要해요. 그거 좀 듣는 것도 必要할 겁니다.

南(宋榮大):相對方이 말할 때는 빨리 끝내라 그리고…….

北(박영수):이 主從關係 이것이 어떤 原理에서 나왔는지는, 어떤 原理에서 그쪽에서 그런 論據를 提起하는 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赤十字가, 赤十字社가 自己 活動에서 藝術, 藝術問題를 절대 次要視할 수 없습니다.

赤十字, 赤十字社의 活動 그 自體가 그 藝術, 藝術의 發展과 결코 이것 떨어져 있지 않다. 그걸 내 풀자는 건 아네요. 뭐 그건 또 알고 있을 테니깐.

南(李峻熙):박선생! 그 얘기하면 우린 또 訪問團 이야기 한다고, 똑같은 結論만 빨리 이야기 하자고,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면 마찬가지지.

(一同웃음)

北(박영수):내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南(宋榮大):내가 말할 때는 빨리 끝내라 그리고 또 새로운 案 준다고 그래서 내 기다리고 있는데…….

南(李峻熙):박선생얘기 알겠어.(웃음)

南(李柄雄):딱 100名으로 그렇게 定합시다.

뭐 여러가지 이야기 할 것 없이 좋은 案…….

北(김광수):案내지 말래요?

北(박영수):그러면 난 뭐 案내는거 留保하지요 뭐, 그것 保留하고, 난

좀더 기다리지요. 뭐, 이야기 할 것들 있으면 이야기 하십시오.

南(李柄雄) : 主從關係 이야기 하면 또 다시 原點으로 돌아가니까, 本質的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南(宋榮大) : 主從關係를 이야기하면 85 年의 討論 狀況으로 또 돌아가요.

北(정덕기) : 主從關係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南(宋榮大) : 우리 피차간에 이제 「어」하면 「아」하고 다 알아 들으니까 그러니까…….

北(박영수) : 아이 참, 자꾸 말이 길어진다. 아 새 提案 내놓겠다고도 될 자꾸 이렇게, 내 그말 안하겠다고 이제 前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될 자꾸들 그래.

南(宋榮大) : 뜬 들이지 말고 빨리 합시다. (一同웃음)

北(박영수) : 그리구 하나는 우리가 그 赤十字에서 明白히 合意한 事項이 7.4 共同聲明의 精神을 具現하기로 하고 또 人道主義問題를 解決하는 過程을 통해서 統一의 디딤돌을 마련해 나가자는 大前提에 合意한 事項에 놓고 비추어 볼 때도 藝術團問題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요전에 뭐 그쪽 通報를 들으니까 그쪽에서 光州에선가? 어디에서 藝術公演을 나갔던 모양이에요? 軍隊에서 그쪽 軍隊에서, 軍隊에서 藝術公演을 나갔는데 그 規模가 어떻게 딱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300 名 이더래요. 發表한데 의하며는 軍隊藝術團이 光州에 나가했는데 그 規模가 300 名 規模로 나와서 했다. 자, 좋습니다. 그저 그런 事實이 있었다는…….

南(李峻熙) : 한사람이 하는 規模도 있어, 한사람이 하는 規模도. (웃음)

北(박영수) : 물론 獨唱會가 있지요, 獨唱會도 있지. 300 名 規模로 했더라.

내 고거를 하나 想起시키고…….

南(宋榮大) : 아주 좋은 것 발견 하셨습니다.

北(박영수) :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우리가 藝術團交流를 赤十字가 맡아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赤十字가 北南關係 改善하는 問題에서 항상 先導的 役割을 해온 거, 뭐 같을 겁니다. 난 여기에 대해에 自負心을 가진단 말입니다. 矜持를 느끼고. 그런 面에서 이번에 우리가 이 藝術公演問題에서 規模도 조금 늘여서 이제 해 나가자고 하는 이거 난 어느모로 보나 이거 좋겠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쪽에서 이내 저 7.7 宣言이란 벌써 政策으로 採擇되어 있잖아요? 交流·協力한다 이렇게 했는데 現實的으로 이제 文化分野次元에서 會談이 아직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面에서는 우리가 저 赤十字가 일단 좋은 先例도 가지고 있는 것 만큼 또 지금 같이 藝術團交換을 하자고 討論하는 마당에서 한 번 좀 크게 잘해 보자 하는 이런 趣旨고.

그런데 어찌겠습니까? 그쪽에서 100名내고 우리는 인제 300명 하겠다고 하는데, 뭐 合意안돼니까 合意點을 摸索해 나가야지. 그런 意味에서 藝術團規模를 우리가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얼마를 줄이느냐 하려는 그쪽에서 50名을 올렸지요? 우리 50名 줄여서 250名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100名, 우리 250名 이렇게 합시다. 意見이…….

(一同웃음)

南(李柄雄) : 아니 왜 그래 참.

北(박영수) : 우리 줄였어요. 거기에 대한 意見을, 거기에 대한 意見을 좀 얘기하십시오. 내 왜 250名으로 하는게 떠오르냐 하는 것 뭐 이젠 그

런 구태여…….

南(李柄雄): 내 조금 이야기 할게요. 저, 發言할 機會가 없으니까 박단장 선생님 時間 많이 말씀하시면서 판사들에게 時間 안주니까 내가 얘기 나왔던 길에…….

北(박영수): 아하, 또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

南(李柄雄): 아니 간단, 간단히 할게요. 이거 뭐 實務會議니까 말에 어디까지나 本質을, 그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이야기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거기는 우리가 그 相互主義라는게 그동안 죽 南北間에 우리가 慣例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尊重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

事實 우리는 이거 상당히 實務的으로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讓步를 많이 했어요. 저희들도 事實 지금 제일 重要한게 記者같은 問題는 우리가 言論社가 지금 사실 한 50~60 個가 되는데 이게 가서 記者들한테 우리가 상당히 얻어맞을 일이지마는 이것도 貴側의 그 뭐 숫자를 勘案을 해서 讓步를 했고, 訪問地問題도 아까 新聞에 뭐 聲明書도 나오고 그랬지만 이것도 저희 代表團에게는 상당히 負擔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訪問地問題를 어떻게든지 이걸 12月8日에 實現하기 위해서 이것은 貴側이 主張하는 대로 그렇게 인제 讓步를 했고.

團長問題는 뭐 그렇습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團長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뭐 事情이 있으면, 有故時에는 또 다음분이 할 수 있는 問題니까 뭐 그런 問題는 크게 問題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相當히 여러가지로 讓步를 해서 來年, 그 지난번에 했던 걸 參酌을 하고 다만 이제 藝術團數만을 貴側에서 讓步를 하면 오늘 모든 問題가 다 解

뜻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事實 이
것도 12月8日이라고 그러며는 藝術團에는 그저 사람 한꺼번에 데리고 가
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그래도 어느정도 할려면 準備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關聯된 人
員數 뭐 이런 것이 다 參酌이 된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며는 貴側과 우리와의 저 아무래도 社會的인 體制上
의 差異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걸 여러가지로 勘案을 해서 저희들이 50
名에서 그래도 이 故訪團事業을 成事시키기 위해서 또 100名으로 이렇
게 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人員을 讓步를 해서 100名으로 했
는데 繼續 人員數가 이렇게 藝術團問題를 가지고 걸리며는 이 事業이 이
게 자꾸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貴側에서도 相互主義 原則에 의해서 100名으로 해서 하면 오
늘 이 問題가 다 풀리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故訪團이 먼저냐 藝術團이 먼저
냐 主從이나 이야기는 자꾸 해 봐야 그저 時間만이 가는 問題밖에…….

北(박영수) :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北(김광수) : 새 案을 우리가 내놨으니까 새 案에 대한…….

南(李柄雄) : 더 꺼내지 말고. 實質的인 問題, 그러니까 貴側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상당히 우리가 實現이 어떻게하면 될 것이냐 하는 問題를 勘
案을 해서 우리가 提議한 것에 대해서 아마 貴側에서도 肯定을 할 것
입니다. 그래서…….

北(박영수) : 새삼스럽게 이걸 뭐 하자고 해서. 저희가 修正案을 내놓았는
데…….

南(李柄雄) :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러가지 問題를 讓步를 했기 때문에 藝術團數는 讓步를 좀 그쪽에서 해가지고 同數概念에서 100名으로 하고 또 相互主義原則에 立脚해서 終結했으면 좋겠습니다.

北(김광수) : 讓步하는 마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案에 대해 誤解마십시오.

北(박영수) : 얘기를 좀 速度를 높입니다. 이거 안되겠어요. 이거 오늘 내가 討論…….

南(宋榮大) :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速度를 높이는 意味에서 애길 할게요.

우선 이 規模問題討議를 될 수 있으면 어느정도 매듭을 지어놓고 그 다음 問題를 討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지금 박선생이 이 藝術團 숫자에 관해서 250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이 合理的인 規模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우선 藝術團의 숫자를 調整하는데 있어서 숫자놀음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숫자놀이를 해서는 안된다. 이걸 어디까지나…….

北(박영수) : 이거 숫자討論을 안하면 무얼 討論하겠어요?

南(宋榮大) : 가만계세요. 거,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그런 認識, 發想은 하지는 말고 그래도 우리 雙方 나름대로 몇개의 어떤 基準을 가지고 숫자 調整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立場입니다. 그 基準이 뭐냐? 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北(박영수) : 또 그거 또 講義들어야겠구만.

南(宋榮大) : 아니 講義가 아니에요. 이걸 貴側이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하나는 離散家族들의 그 意思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考慮해야 되고.

둘째는, 이번 第2次 訪問團事業을 할려고 하는 目的, 趣旨가 뭐냐 하는걸 考慮해야 되고.

또 세번째는 이 故鄉訪問團하고 藝術團하고의 性格의 差異를 분명히 보고 接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거 우리 나름대로 어떤 基準을 가지고 이 숫자 調整을 해야지 그저 算述의으로 貴側에서 50했으니까 우리도 50한다. 이걸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規模問題에 관해선 이렇게 합시다. 오늘 우리 雙方이 지난 接觸때 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融通性을 發揮했습니다.

北(박영수) : 霧圍氣 상당히 좋잖아요?

南(宋榮大) : 霧圍氣도 좋고 融通性 發揮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도 접어두고 다음 두번째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좀 討論해야 될 것이 規模問題를 除外한 餘他問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問題입니다.

그래서 내가 첫發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餘他問題 우선 그 內容은 藝術團交換公演과 關聯해서 雙方이 오늘 내용은 合意書案을 比較해보며는 대체로 한 다섯가지 部門에 意見差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藝術團問題 以外에 기타 訪問團 交換과 關聯해서도 몇가지 점에서 意見差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많은 部門에 있어서 意見差異가 있기때문에 이것을 놓고 하나하나 별도로 討議하게 되며는요 우리 合意한 12月8日에 訪問團交換 못합니다. 날짜가 한달 남았는데 지금 貴側이 내용은 提案에 의하며는 訪問團交換 20日前에 名單 交換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8일이예요.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北(박영수) : 무슨 소리야? 열흘밖에 안남아? 한달 남았는데…….

南(李柄雄) : 20日前에 名單을 주고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18日이지 않았습니까?

北(박영수) : 원래 그쪽에서 내놔던 건 한달전에 하자고 그랬었는데.

南(宋榮大) : 아니, 지금 貴側의 오늘 提案을 보고 하는 얘기에요. 이런 式으로 하게 되며는 우리 合意한 12月달에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細部的인 問題를 하나하나 討議할게 아니라 一括討議하자 그런 얘깁니다. 一括討議하고 一括的으로 해가자 이거예요.

一括討議, 一括解決에는 뭐가 좋으냐? 그것은 先例를 準用하는 方式이 제일 適合하다는 거예요.

왜? 이 先例라고 하는 건 우리 雙方이 다 이번에 討論하면서도 군데 군데 지금 強調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先例準用方式으로 해가지고 一括妥結 해버리자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先例를 이야기하면서 訪問地 問題에 관해서 讓步했습니다. 사실 내 이걸 길게 얘기 안합니다마는 이 訪問地問題는 우리側으로서는 참 讓步하기 어려운 部門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一括妥結하기 위해서는 이거 할 수 없다. 우리가 讓步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先例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訪問地 우리가 讓步하는데 있어서 한가지 분명히 할게 「藝術團의 그 交換公演 등 餘他問題도 先例대로 한다」라고 하는 前提 위에서 이 訪問地를 讓步한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訪問地 讓步 하나만 떼어가지고 해석하지는 말아 주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北(박영수) : 그거예요?

南(宋榮大) : 예, 그래서

北(박영수) : 거 다시 봅시다. 그쪽 基調發言을 다시 봅시다.

北(김광수) : 그 사이 내가 한마디 이야기 합시다.

南(宋榮大) : 될수록 좀 짧게 하세요.

北(김광수) : 우리가 오늘 그 새로운 案을 두 가지로 내렸습니다. 하나는 藝術團 規模를 50名으로부터 300名까지의 範圍에서 각기 便利하게 하자 이런 案을 처음에 내놓고.

다음 두번째는 그쪽에서 지금 100名으로 내렸기 때문에 100名부터 250名の 範圍안에서 각기 편리하게 하자 이런 案을 修正案으로 내렸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이 案은 3次 接觸때 宋先生을 비롯해서 貴側 代表團이 이야기한, 提起한 것을 참작을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하게 宋先生이 3次 接觸에서 이야기한 것이 互相性의 原則에 맞지 않는다. 우리는 300名으로 하고 그 다음에 南側은 50名으로 하면 人員이 比例가 맞지 않는다. 互相性의 原則에 맞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 그걸 參작해서 우리는 오늘 南側은 50名으로 하고 우리는 300名으로 하고 이렇게 누르지 않고 50 내지 300名, 또 100 내지 250名の 範圍에서 각기 편리하게 하자. 두 가지를 다 參작한 겁니다.

우리만 뭐 더 많이하고 貴側은 적게 하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그 안에서 편리하게 하자 이거는 互相性의 原則에 符合되게 내놓은 案입니다.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게 없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별 반 反對할게 없지 않겠는가…….

南(宋榮大): 저 박선생! 시간 많이 갔는데 내 하나 중요한 얘기 하지요.

北(박영수): 이제 거기서 저 討議 앞으로 討議方式 問題도 내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회담에서 주요한 成果가 뭐이나? 規模問題에서 서로 어쨌든 절충안이 나왔다.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절충안을 냈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見解가 接近되어 간다. 절벽으로 부터 캄캄하던 데로부터 그래도 가느다란 빛이 새어 들어온다. 그런 구멍이 뚫렸다. 나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그것도 역시 좋은 성질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하나는 訪問團의 訪問地 問題를 平壤과 서울로 合意한거 이거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원래 그 問題와 관련해서는 애당초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지만 애당초 지금 段階에서 自由來往의 示範事業으로 될 수 있는 故鄉까지 가는 問題는 지금 段階에서는 提起될 段階가 아니다. 원래 내 그건 이미 強調했기 때문에 그만 두고.

이제 남은 問題가 뭐이나? 이제 뭐 宋先生 뭐 節次에 다섯가지 뭐 몇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남은 問題가 이제 實況中繼 問題입니다. 實況中繼 問題 하나만 討論 끝나고 訪問團 規模 問題만 討論이 끝나면 그 나머지 問題 있잖아요 이걸 일사천리 나는 30분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問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보건데는.

그건 뭐 우리가 그쪽 案에 그쪽 主張에 대해 同意해 줄 것도 있고

또 그쪽에서 우리 案에 同意할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나머지 問題는 문제가 없다. 나는 이렇게 確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訪問團 規模 問題에서 서로 妥協案을 내렸고, 訪問地 問題에서 合意가 이룩된 條件에서 우리가 또 이제 일차 만날 時間이 있지 않습니까? 峻熙先生!

南(李峻熙) : 아, 잠깐만, 訪問地 問題를 合意를 본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北(박영수) : 가만 얘기를 마저하고, 그래서 저는 내 提案을 하나 내겠는데 訪問團 規模問題, 藝術團, 藝術公演 實況中繼問題 이 두개 문제, 세문제로부터 두개 문젠데 이거를 合意하면 나머지 問題는 난 그저 30분이면 되리라고 確信하기 때문에 이제 뭐 時間도 많이 갔는데 그거는, 우리 이거 지금 非公開이지요? 이거 지금 記者들 못 듣지요?

南(宋榮大) : 물론이지요.

北(박영수) : 그런거에 관해서 내가 얘기를 하면 峻熙先生하고 우리 저 김광수 代表하고 앉아서 折衷하는 마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內的으로 좀더 오손도손 折衷하도록 一任을 하고 오늘 接觸을 이만큼 이것으로서 끝내는게 어떻겠는가? 벌써 12時가 지났구먼.

그래서 뭐 저 진짜 뭐 저 깨진 축음기판 돌리듯 계속 한 소리 나오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거 저 계속 같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오늘 接近된게 적지않게 있으니까, 그런것은 아주 거 成果로 우리가 認定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금년내에 이 두가지 事業 할 수 있다. 난 이렇게 確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接觸을 그저 이만 하면 어떻겠는가?

南(宋榮大) : 알겠습니다.

우리 李峻熙代表하고 김광수代表하고 두분에서 接觸갖는 것 좋습니다.
同意합니다.

北(박영수) : 예.

南(宋榮大) : 그리고 지금 박선생이 訪問地問題에 관해서 서울·平壤으로 合
意된 것 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아직 合意가 안된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왜냐? 우리側 첫발언문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가 訪問地를 讓步한 것은 서울·平壤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公
演團의 交換公演 등 나머지 餘他問題를 1次事業때와 똑같이 한다. 先例대
로 한다고 하는 前提 위에서 讓步한 겁니다.

이것은 떼어서 생각할 問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中
繼問題도 先例대로 한다는 前提 위에서 우리가 訪問地를 讓步한다는 것
을 분명히 말합니다.

北(박영수) : 좋습니다.

南(李柄雄) : 단 지난번 처럼 하자는 겁니다.

北(박영수) : 그러니까 우리 1차때, 3차때 우리 合意한 原則이 있잖습니
까? 이걸 一括合意가 다 되어야 그것이 合意다.

南(宋榮大) : 그렇지요.

北(박영수) : 뭐, 어느 하나만 合意되었다고 해서 요건 實踐에 옮기고 이
런건 없다 말이에요. 一括合意란 말이에요.

上程된 問題에 대한 一括合意가 되어야 지금 實現할 수 있는 것이니
까 그건 뭐, 저, 나머지 問題가 해결돼야 訪問地 問題도 合意된다. 좋
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지요.

그쪽 意見이 그렇다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一括合意 原則만 이것만 우리 明白히 해놓고 오늘 接觸 그만합시다.

南(宋榮大) : 좋습니다.

北(박영수) : 날짜 정하십시오. 그쪽에서 내가 지금까지 날짜를 두번 연거푸 정했는데 날짜를 잘 정했어요. 다음에는 비오는 날 하지 마세요.

南(宋榮大) : 오늘도 지금 날씨가 淸明한 것은 아니예요. (一同웃음)

北(박영수) :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柄雄先生 장가, 시집갈 아이 있으면 나한테 날짜 꼭 依賴하세요.

南(李峻熙) : 그렇게 안되겠는데요.

北(박영수) : 왜요?

南(李峻熙) : 박선생이 딱딱하게 하니까 해가 쪽들어 갔어요. 또.

北(김광수) : 이런 날짜 받는 것이 보통이 아니예요.

北(박영수) : 3일동안 연거푸 비가오다가 안왔다는 것, 역시 이건 先見之明이 있는 거예요. 날짜 정하십시오.

南(李柄雄) :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정해야지요.

南(宋榮大) : 사실상 아시다시피 時日이 촉박하잖아요?

北(박영수) : 그렇지요.

南(宋榮大) :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貴側도 平壤 다녀와야 되고 또 두분 만나는 일도 있고.

北(박영수) : 예.

南(宋榮大) : 이거 다 考慮해서 오는 13日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北(박영수) : 13日?

南(宋榮大) : 月曜日날.

北(박영수) : 그쪽에서 月曜日날 잘 定하지 않더니, 이제 月曜日날 잘 定한다.

南(宋榮大) : 이번에는 상황이 좀 바쁘지요 .

北(박영수) : 月曜日날 여기 停戰委員會 그쪽에는 어드래요? 停戰委員會?

北(김광수) : 그건 火曜日날…….

北(박영수) : 火曜日날도 있고, 水曜日날도 있고, 月曜日날도 있다고 우린 그런 意見を 들었는데…….

南(李峻熙) : 月曜日날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北(박영수) : 그래요?

南(李峻熙) : 이쪽에서 정했으니가 받아 줘야지요 .

北(박영수) : 좋아요 . 좋아요 .

北(김광수) : 日曜日날 또 내려와야 겠구만.

北(박영수) : 말하자면 宋先生 말하는 것 마따나 不文律의 原則, 서로 부르면 그저 그 날짜에 同意해 주기로 합시다. 13日.

南(李柄雄) : 날씨가 좋을거예요 .

北(박영수) : 좋기를 바랍니다.

記者들한테 욱먹어요 , 비오면.

南(李柄雄) : 藝術團도 지난번 1次事業을 잘 참작을 해서 研究를 좀 잘 하십시다.

南(李峻熙) : 아까 박선생이 너무 融通性이 없으니가 해가 그만 쪽 들어갔단 말이에요 . 融通性을 보여야지. (一同웃음)

北(박영수) : 宋先生, 수고 많았습니다.

北(김광수) : 열사흘날 만남시다.

南(宋榮大) : 다음 번에는 꼭 끝내도록 합시다.

北(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南(宋榮大) : 예, 수고하셨습니다.

〈雙方代表 人事交換後 退場〉

〈附錄〉

代 表 團 記 者 會 見

< 우리側 代表團 記者會見 >

- * 日時 : 1989.11.8 (水) 13:05 ~ 13:32
- * 場所 : 板門店 우리側 地域 「平和의 집」
- * 發表 및 答辭 : 宋榮大 首席代表

1. 記者會見文

오늘 接觸 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接觸은 午前 10時부터 12時 15分까지 進行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雙方사이에 未合意 問題로 남아 있는 것이 크게 보아서 네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訪問團의 規模 問題이고, 둘째는 訪問地 및 訪問期間 問題이며, 셋째는 藝術團의 交換公演 問題, 넷째는 其他 「訪問團」交換과 관련된 細部推進 節次問題입니다.

그런데 네가지 未合意된 事項 가운데 우선 規模問題와 關聯해서 우리側에서는 規模問題 討議의 膠着局面을 打開하기 위해서 交換訪問團 300名, 藝術公演團 100名을 오늘 修正提議 했습니다.

故鄉訪問團 數字 300名에 관해서는 雙方間에 提案上에 見解一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雙方이 내놓은 그 提案에 우연히도 數字가 300, 300으로 같이 되어있다 하는 狀況이지 이것이 아직 正式合意로 굳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提案上의 300이란 數字에 意見의 一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견 그대로 두고 意見差異를 보이고 있는 藝術團 數字에 관해서 折衷을 벌여야 되겠다 하는 立場에서 그동안 우리가 50名の 數字를 提議했는데, 오늘 이것을 倍로 늘려서 100名으로 修正提議를 한 것입니다.

이와함께 우리側에서는 取材記者團數 또 支援人員數에 있어서도 讓步를 했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取材記者團數를 100名으로 생각을 하고 또 支援人員 數字도 50名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立場에서 提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北側에서 記者數를 30名으로 해야 되겠다, 支援人員數를 40名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쪽 主張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에 관해서도 우리가 讓步를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北側이 내놓은 記者 30名, 支援人員 40名도 그대로 받아 들였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側이 오늘 내놓은 修正案 事項에 나타난 「訪問團」의 規模는 總 471名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北側은 藝術團 數字에 관련해서 50名과 300名 範圍內에 각기 便利한대로 定하자 하면서 自己側에서는 300名으로 하겠다 하는 立場을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討議가 한창 進行되다가 後半部에 가서 우리가 規模를 除外한 餘他問題, 訪問地라든가 모든 問題에 있어서 讓步를 하고 들어 가니까 北側에서는 할 수 없이 藝術團 數字를 250名으로 修正提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北側이 修正提議한 藝術團 250名은 우리側에서 보기에는 合理的 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相互主義」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南北사이에 그동안에 相互主義가 상당히 尊重이 되어왔고 또 이것 앞으

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우리는 訪問團 總數面에서 相互主義가 適用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同數規模」로 해야 된다는 立場을 밝혔습니다.

또 同一한 性格의 事業間에는 相互主義가 適用되어야 한다. 예컨대 故鄉 訪問團하게 되면 南의 訪問團이든 北의 故鄉訪問團이든 性格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는 同一한 基準이 適用되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總數에서도 同一해야 되고 同一한 性格을 갖는 事業間에는 同一한 基準이 適用된다 하는 뜻에서 「相互主義」를 생각하고 있는데, 北側에서 오늘 내놓은 250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受容하기가 어렵다하는 立場을 밝혔습니다.

다음에 이제 重要な 것이 訪問地 問題입니다.

訪問地 問題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側 離散家族들이 故鄉까지 直接가서 省墓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事實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實務接觸의 膠着局面을 打開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것을 하나 讓步해야 되겠다. 그래서 訪問地를 先例대로 서울·平壤으로 해도 좋다는 立場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訪問地 뿐 아니라 訪問期間·藝術團의 交換公演·其他 細部推進 節次 등 餘他の 모든 問題를 갖다가 先例대로 하자는 立場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規模를 除外한 餘他の 모든 問題를 先例대로 하자고 主張한 그 背景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같이 지금 時日이 促迫합니다. 오늘부터 이 第2次 「訪問團」 合意한 날짜까지 꼭 한달 남았는데요. 우선 12月8日날 「訪問團」을 交換하려고 그러면 10日 내지 20日前에 訪問團 名單을 交換해

야 합니다. 故郷訪問團 名單을 서로 交換해야 됩니다.

時日이 促迫하기 때문에 合意된 12月 8日날 꼭 實現시키기 위해서는 一括妥結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一括妥結해야 되겠다. 一括妥結하려고 할 것 같으면 結局 先例方式을 준용하는 길 밖에는 없겠다. 이렇게 判斷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단 規模를 除外한 餘他問題는 全部 一括妥結하는데 一括妥結의 方向은 先例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主張을 했습니다.

이러한 立場에 의해서 우리가 合意書案까지 오늘 全部 내놓았습니다. 그저 「싸인」만 하면 되게끔 合意書案을 다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남은 問題를 先例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雙方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公平한 案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雙方의 主張을 갖다가 比較해 보면 크게 두가지 特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1次 「訪問團」 事業 때보다 좀 달리하자고 하는 部分이 있고 또 하나는 1次 「訪問團」 事業 때와 똑같이 하자, 先例대로 하자 하는 이 두개의 特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側에서 보기에 그동안에 爭點이 되어온 것은 過去와는 달리 하자는 部門 쪽에서 意見對立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意見對立이 심각한, 過去와는 달리하자는 이 部分 이것은 일단 留保를 시켜놓자는 겁니다.

留保시켜 놓고 그 代身에 이 雙方間에 意見이 接近되어 있는 先例대로 하자는 그 部分을 우리가 살려가지고 그것을 共通分母로 해서 妥結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우리가 일단 先例方式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先例方式은 그동안 南北對話運營 過程에서 雙方이 쉽게 合意에 到達했고 또 實踐에 옮겨온 方式이기 때문에 北側이 이번 「訪問團」 事業을 할려고 하는 意志가 있다면 우리의 그와 같은 提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討議를 한 結果 오늘 結局 두가지 點에 意見一致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내놓은 一括討議, 一括合意 原則에 雙方이 意見을 같이 했습니다. 또 하나는 次期接觸日字를 11月13日날 갖기로 했습니다.

以上이 오늘 接觸結果 內容이 되겠습니다.

質問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2. 質疑·應答

質問：實況中繼에 대해서 말이죠. 北韓側 박단장은 아까 生放送, 우리는 여기에서 先例대로 하자면 그것은 이제 生放送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問題에 대해서 앞으로 北韓의 主張을 受容할 用意이 있습니까?

答辯：제가 아까 說明드릴 때 지금 南北間에 未合意 事項으로 크게 보아서 네가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藝術團의 交換公演과 關聯해서 雙方間에 見解差異를 나타내고 있는 部分이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지적하신 實況中繼問題이고 그 다음 두번째는 公演種目 紹介問題 또 公演 「프로그램」 交換問題, 公演內容問題, 公演回數問題 이렇게 해서 다섯가지 爭點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公演에 관련된 다섯가지 爭點外에 또 다른 爭點으로서 한 네가지쯤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한 아홉가지 爭點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規模問題를 除外하고 餘他の 問題로서는 아홉가지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아홉가지를 가지고서 個別討議를 進行하게 되면 12月8日날 故鄉訪問團 交換 못합니다.

이것은 좀 大局的 見地에서 「一括妥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一括妥結」해야 되겠다 하면서 先例方式으로 하자. 이렇게 쉽게 하자는 것을 主張했습니다.

그런데 北側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한 一括討議・一括合意에 原則적으로는 同意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公演中繼問題 등 몇가지를 繼續 問題提起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렇게 個別討議 쪽으로 가게 되며는 이건 事業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것은 한꺼번에 一括討議를 해야된다. 이러한 立場입니다.

그래서 公演中繼問題도 지난 1次때 先例대로 相互 便宜主義에 立脚해서 하자 하는 立場입니다.

이 立場은 제가 變함이 없습니다.

質問：앞으로 變化可能性도 없습니까?

答辯：예, 없습니다. 또 다른 質問 해주시죠.

質問：數字에 대해서 北側이 250名까지 내려왔는데요. 우리 政府가 지난 번에 藝術公演團의 數字를 적게 하자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人道主義的 事業인 만큼 故鄉訪問團을 조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굳이 우

리가 北側의 立場을, 그것 말고 北側의 提案에 反對하는 또 다른 理由가 있습니까?

規規를 200 名이라든지 250 名, 300 名線으로 우리가 안하고 100 名線으로 낮추는 具體的인 理由를 말씀해 주십시오.

答辯 : 그 理由는 크게 보아서 세가지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藝術團 數字를 100 名으로 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判斷하는 理由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은 우리側 離散家族들의 意思를 볼때에 藝術團 數字를 크게 불리는 것을 願치 않습니다.

며칠 前에 우리側 離散家族團體인 「1千萬 離散家族再會推進委員會」 또 「以北 5道民會」 이 두 團體에서 合同으로 聲明書를 發表했습니다.

그 內容을 보면 세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人道主義的인 次元에서 어디까지나 故鄉訪問團이 中心이 되어야 되고 藝術團 그것은 別途의 會談에서 別途의 事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側 離散家族들의 念願의 要求를 제가 오늘 北側하고 이야기 하면서 전했습니다. 우리側 離散家族들의 意見이 이러니까 이것을 당신들이 參考를 하십시오 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있고 다음 두번째는 이번 2次 「訪問團」 事業의 目的·趣旨를 볼 때에 藝術團을 100 名 以上으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 「訪問團」 目的·趣旨는 한마디로 이야기 한다면 離散家族들을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離散家族들의 苦痛을 다 소나마 덜어주고 이들에게 기쁨·希望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기쁨·希望을 주자며는 그런 人道主義 事業과 直接 關聯이 없는 問題를 너무 浮刻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번째 理由는 「故鄉訪問團」하고 「藝術團」은 그 性格面에서 엄연히 差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強調하고 있습니다마는 南北사이에 藝術團 交換하는 그 自體는 좋다 그것입니다.

그 自體는 나무랄데가 없는데 方法面에 있어서 그것을 어디까지나 南北 文化交流 次元에서 해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赤十字 人道主義 次元에서 할때에는 그렇게 故鄉訪問團하고 같은 比重을 둔다는 것은 좀 무리가 간다하는 그러한 點에서 우리가 數字를 100名이 合理的이라고 보는 겁니다.

質問：그런데 우리側 案이 合理的이라고 하셨는데 南北赤十字會談의 再開 및 南北對話의 進展을 위해서 우리側이 北側의 要求·主張을 좀 大乘的인 次元에서 받아들인다는 대목은 없습니까?

答辯：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오늘 우리는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놓았습니다.

보십시오. 訪問團과 關聯해서 우리가 藝術團 數字 늘렸죠, 記者數·支援人員數 北側案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訪問地 問題를 비롯해서 訪問期間 이런것 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結局 北側이 對答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藝術團 規模 100名이 適合하다고 說明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數字를 定한데는 基準이 있어요. 이것 막연하게 定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北側에서 自己들 藝術團 數字를 300名에서 250名으로 내렸다고 하여 자꾸 이야기 하길래 『우리 數字늘음 하지 맙시다』고 그랬습니다.

이 藝術團數 定하는데 그렇게 算術的으로 이렇게 數字 늘음하지 맙시다.

이 藝術團 數字 定하는데 基準이 있어야 됩니다.

그 基準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가지 基準이 있습니다. 離散家族들의 要求가 무엇이며 이번 「訪問團」 事業의 趣旨가 무엇이며, 두 事業의 性格이 어떻게 다르며 이러한 基準을 놓고서 우리가 調整을 해야지 그렇게 數字늘음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名을 이야기 할때 생각한 것은 北側에서 지난번에 自己들이 300名을 내놓은 背景에는 『國際的 慣例를 考慮했다』 이렇게 이야기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돌아가서 國際的 慣例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結果 지금 國際的으로도 藝術團 交流할 때에 一般的으로, 普遍的으로 한 100名內外 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LA올림픽때 우리側에서 藝術公演團 보내고 公演을 했는데 그때 75名 보냈습니다.

물론 特別한 例外는 있습니다. 特別한 例外는 있지만 우리가 普遍的 基準으로 볼때 100名內外다 이겁니다.

더 더군다나 이게 지금 南北間에 正式 文化交流次元이 아니고 人道主

義次元에서 하는 그런 藝術團이라고 한다면 100名으로 充分하다.

또 北側에서 지난번에 300名을 主張할 때 論據를 어떻게 展開했는가 하면 이번 2次 「訪問團」事業의 性格을 자기들은 「象徴事業」으로 본다는 겁니다. 象徴的 事業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번 事業의 性格을 象徴的 事業으로 보기 보다는 離散家族 問題解決을 위한 하나의 「示範事業」(Pilot 事業)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貴側 主張대로 象徴事業으로 假定을 합시다.

象徴事業이라고 假定해 놓고 이 100名이라고 하는 藝術團의 數字가 象徴性を 發揮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십시오. 내가 보기는 50名도 象徴性を 發揮할 수 있는 것인데 100名이라고 하면 充分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했습니다.

質問：아까 北側 代表團長 이야기는 一括妥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宋代 表님 말씀하신 것과 完全히 다른데요? 그 사람들은 故郷訪問團하고 赤十字 本會談을 같이 一括妥結하기로 하였다고 그랬었거던요?

答辯：그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一括妥結·一括合意를 내놓을 때는 어디까지나 第2次「訪問團」에 關聯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本會談하고는 전혀 關係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첫 發言文에 분명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本會談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같이 이미 날짜가 合意되었지 않습니까? 本會談에 대해서는 더 以上 이제 論議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一括妥結·一括合意 내놓은 것은 第2次 「訪問團」 事業과 關聯해서 未合意 事項을 討論하고 妥結짓는 하나의 方便으로서 이

것을 내놓았다고 말씀드립니다.

質問：離散家族 訪問時期가 12月8日인데요. 지금 한달에서 더 줄어드는 狀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12月8日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까?

答辯：그렇지요.

質問：예를 들어서 11月13日날 만약에 合意가 안되어서 또 다음으로 延期가 되더라도 12月8日날에는 하려는 하게 됩니까?

答辯：저는 이 合意한 그 12月8日是 기필코 成事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絶對 變更해서는 안됩니다.

質問：宋代表께서 말씀하시기는 남쪽에서 내놓을 것은 全部 다 내놓았다고 그리고 이제는 北側에서 對答을 해야 된다, 어떻게든 讓步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北側에서 하는 얘기는 『實況中繼에 한하는 限 藝術團公演의 實況中繼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既定事實的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두분, 兩側의 立場이 아주 다른데 이 다른 立場을 考慮할 때 成事가 可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程度의 成事可能性이 있다고 보십니까?

答辯：北側 代表 會見하는 것을 제가 못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中繼問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側에서는 相互 便宜主義 立場 그것 不變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직도 未合意 事項이 지금 아홉가지정도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個別討議를 하고 個別的으로 問題提起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月달에 事業成事 못시킵니다.

質問：그러면 北韓態度에 變化가 없는限 事業成事は 안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答辯：예. 그래서 제가 結論的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오늘 規模問題를 비롯해서 訪問地 등 여타 모든 問題에 대해서 지금 내놓을 것은 다 내놓았고요.

北韓은 從前態度에서 별 變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自己側의 藝術團規模를 300名에서 250名으로 調整했다. 이것 하나 以外에는 하나의 變化도 없습니다.

이와같이 지금 時日이 促迫한데도 不拘하고 北韓이 既存立場을 繼續固守하는한 이것은 과연 우리가 合意한 12月달에 成事が 될것인가? 의 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處事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로서는 最後의 瞬間까지 모든 誠意를 다 하여서 努力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質問：그렇다면 지난번 3次接觸에서 12月8日 合意가 되었을때부터 準備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12月8日을 「D데이」로 잡으시고 準備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答辯：예, 물론이죠. 지금 우리 準備 다 들어갔습니다.

質問：北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答辯：그것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質問：TV中繼에서 相互 便宜主義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答辯：그것은 各其 便利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自己의 形便에 따라서 實況中繼할 수도 있고 녹화중계도 할 수 있고 또 다른方

法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제가 參考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1次 「訪問團」交換時 우리側에서는 녹화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北側에서는 果然 그런 것을 했는지조차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質問：오늘 會談成果에 대해서 整理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答辯：지금 드린 바와같이 우리로서는 지금 일단 내놓을 것은 다 내놓았는데 北側의 態度에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態度 變化가 계속 없는한 앞으로 次期接觸이 과연 成功的으로 妥結될것인지 疑心을 갖게 하는 그러한 部分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質問：重要한 것은 말이죠. 아까 北側團長이 마지막 會見하는 末尾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며는요, 實況中繼에 대한 강한 엑센트를 賦與했거든요?

그러면 뭐냐하면 그건 결국 韓國, 南韓에 내려와서 實況中繼를 하는 것은 南韓에 많은 TV 受像機가 있기 때문에 各 家庭에서 TV를 보는 南韓사람들에게 自己들의 政治宣傳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意圖가 內包되어 있는데 그 問題에 대해서는 어떻게 評價하십니까?

答辯：제가 그와같이 主張하는 北側의 意圖에 대해서 評價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대로 最後의 瞬間까지 어떻게든지 讓步를 하면서 妥協하려는 立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말을 하기에는 時期尙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와 關聯해서 한가지 分明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 實況中繼問題

는 이번 第2次 「訪問團」事業의 本質問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至極히 부수적인 問題입니다.

그런데 北側이 이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問題를 本質問題인것 처럼 앞에 내세우고 이것을 繼續 高집하는 한 이 問題妥結은 어렵다고 봅니다. 質問이 없으시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 北側 代表團 記者會見 >

- * 日時：1989.11. 8 (水) 12:16 ~ 12:33
- * 場所：板門店 北側 地域 「板門閣」앞 階段
- * 發表 및 答辯：박영수 團長

1. 記者會見文

오늘 雙方은 藝術團 規模問題에 關해서 各其의 提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를 가지고 오늘 接觸에서 처음부터 論議가 있었는데 역시 南側에서는 어떠한 態度로 나왔는가 하면 지난번 接觸에서 마감시간에 내놓았던 그 案은 自己들의 正式提案이 아니라 하나의 可能性이었다는 이런 方法으로 거기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同意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藝術團 規模問題와 關聯해서는 膠着狀態에 또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條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오늘 接觸에서는 藝術團 規模問題를 妥結짓기 위해서 修正案을 우리가 냈습니다.

어떤 修正案인가 하면 藝術團 規模를 300名으로부터 50名 줄여서 250名으로 할데 대한 提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250名으로 할데 대한 提案을 내놓은 다음에 그저 簡單히 서로 意見을 주고받은 다음에 그 問題는 앞으로 더 研究하기로 訪問團 規模問題 討議를 끝냈습니다.

그 前에 南側은 오늘 接觸에서 藝術團 規模問題와 關聯해서 自己側

50名 提案을 撤回하고 100名으로 할데 대한 提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名부터 250名 이 사이에서 그러면 便宜主義的으로 定하자 이런 案을 내놓았는데 結局 討議 했지만은 合意는 보지못했습니다.

다음으로 訪問地 問題입니다.

訪問地 問題는 우리가 一貫하게 強調하고 있는 것처럼 이 問題는 지금 段階에서 故鄉訪問團이 故鄉까지 갈 수 없다는 立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南側은 지금 故鄉訪問團의 訪問地를 故鄉까지 가도록 하자 하는 主張을 하면서 그 根據를 뭘로 드는가 하면 이번 故鄉訪問團 交換이 自由來往의 「示範事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段階에서는 自由來往의 示範事業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는가? 흠어진 家族・親戚들의 自由來往을 實現할데 대한 問題는 지금 本會談에서 討議中에 있습니다. 서로 提案을 내놓은 段階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示範事業」이라고 하면 뭐인가? 더욱이 自由來往의 示範事業이라고 할 때는 本會談에서 自由來往에 관한 모든 問題가 合意된 다음에 이 北과 南이 근 45年 동안이나 헤어져 있는 條件에서 앞으로 自由來往을 하려면 여러가지 豫見치 않던 問題들이 提起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示範的인 事業으로서 몇 名, 數十名 程度 自由來往을 시켜본다.

이것이 自由來往의 示範事業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本會談에서 自由來往問題 討議가 끝나지 않은 狀態에 있는데 이런 狀態에서 自由來往의 示範事業으로 故鄉訪問團 交換事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콩밭에 가서 두부를 찾는 격」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南側은 어떤 提案을 내놓았는가 하면 藝術團 公演의 實況中繼問題를 包含한 나머지 實務節次問題들을 第1次 「訪問團」交換 때, 1985年度에 進行한 1次 藝術團・故鄉訪問團 交換 때의 先例에 따르도록 한다는 條件下에서 故鄉訪問團의 訪問地를 平壤과 서울로, 自己들이 故鄉까지 가도록 하고자 하던 것을 取消하고 平壤과 서울로 할 수 있다는 用意을 表明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問題에 대해서 뭐 前提條件을 달지말고 그저 故鄉訪問團의 訪問地도 平壤과 서울로 合意하자 이것을 主張했는데 結局 南側은 餘他問題를 先例에 따라 하기로 하는 前提條件下에서 平壤과 서울로 하겠다는 것을 主張했습니다.

南側이 그런 主張을 하게된 背景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건 제 私見입니다.

藝術團의 公演을 實況中繼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 그만두자는데로부터 出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藝術團 實況中繼問題와 關聯해서 이것이 뭐 하나의 너무나 應當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既定事實化했습니다.

北과 南이 藝術團을 交換하는 以上에는 實況中繼를 해야된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藝術團을 交換하는 目的이 本會談의 雰圍氣를 좋게한다는 그러한 主要한 側面이 하나 있고 또다른 하나는 이 藝術團 交換을 통해서 北이 南의 實態를 잘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民族的 和解와 團合의 雰圍氣를 圖謀하고 그것을 통해서 統一에 有利한 雰圍氣를 造成해

나가자는데 基本趣旨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南側도 反對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藝術團의 實況中繼問題는 이것은 反對할 何等的 理由와 根據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立場이었습니다.

그러나 南側은 오늘 會談에서 繼續해서 藝術團의 公演 實況中繼問題도 하지 않는다는 前提條件下에서 故鄉訪問團의 訪問地를 平壤과 서울로 할 것을 固執을 했습니다.

이것은 完全히 固執입니다.

그래서 結局 오늘 實務接觸에서는 뭐 뚜렷하게 合意本 內容은 없지만은 그래도 全般的으로 總和해놓고 보면 相當한 前進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음 第5次 實務接觸은 11月 13日에 繼續하기로 合意가 되었습니다.

뭐 물어볼 것들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2. 質疑·應答

質問：故鄉訪問團 交換事業과는 달리 지금 本會談이 12月 15日날로 豫定되어 있는데, 赤十字 11次 本會談 말입니다.

그것이 12月 15日로 合意된 事項은 아닙니까?

그런데 故鄉訪問團 事業과는 別個로 그것은 合意된대로 履行이 되는 것입니까?

答辯：오늘 實務接觸에서 어떤 問題를 다시 明白히 合意했는가 하면, 이것 「合意事項」입니다. 그것을 念頭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實務接觸에서 討議하게될 問題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第2次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事業問題, 둘째로 第11次 北南赤十字會談 再開問題 이 두가지 問題입니다.

이 두가지 問題에 대한 一括合意를 보기로 되어있습니다. 어느 하나는 合意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問題를 設定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 合意를 했습니다.

그리고 主要하게는 今年內에 이 두가지 事業을 다 어떻게 하나 成事시키기로 合意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意見의 一致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問題에서 이러이러한 難關이 있지만은 이 問題에 대한 合意點을 導出하기 위해서 雙方의 倍加의 努力이 傾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質問: 지금 北韓側이 藝術團 規模를 100名에서 250名 사이로 오늘 論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北韓側이 예를 들어서 250名이라고 이야기 했을 때 故鄉訪問團 規模도 250名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答辯: 故鄉訪問團 規模問題는 이미 合意가 되어 있습니다. 300名, 300名으로.

質問: 合意된 것으로 看做하시는 것입니까?

答辯: 예, 合意된 것으로 看做합니다.

質問: 이번에 相當히 進展이 있었다고 그러셨는데요.

實質적으로 뚜렷하게 合意된 事項은 없다고 또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相當히 進展된 部分이 있습니까?

또 한가지는 南側에서는 藝術公演 實況中繼를 안하고 싶어 한다, 北側

에서는 이미 그것을 既定事實로 받아 들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南側에서 그 前提條件을 撤回하지 않을 경우에는 北側에서 讓步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까?

答辯 :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제 記者先生들한테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렇게 안되면 이렇게 안되겠는가?』 자꾸 이렇게 問題를 設定하지 말고 이 두가지 問題를 어떻게 하나 다 하는 方向에서 記者先生들이 좀 이 報道活動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問題도 어떻게 하나 合意點을 導出해 나가야 하겠지요.

아마 그런 努力을 各其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應當 그렇게 努力할 겁니다.

質問 :오늘의 相當한 進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答辯 :相當한 進展은 뭐 그 어떤 具體的인 問題에 대해서 딱 이게 合意되었다. 요게 合意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進展이다 이것 보다도 서로 지금 대치되어 있는 몇가지 問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妥協하고자 하는 이런 立場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問題는 특히 우리가 이제 그런 立場을 보였고 南側에서도 그런 立場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重要하다. 뭐 어떤 個別的인 合意事實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서로 마음이, 마음가짐이 重要하지 않겠는가. 나는 이것을 重要하게 봅니다.

質問 :말씀하신 部分에 대해 다시 한번 分明히 하기 위해 質問하겠습니다.

赤十字 本會談과 「故訪團」交換이 말이죠. 故鄉訪問團 交換이 만일 이

것이 實務接觸에서 좀 늦추어져서 來年初라든지 이렇게 延期될 경우에 赤十字 本會談은 그냥 그대로 進行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것도 따라서 같이 延期된다는 말씀인지요?

答辯 : 우리는 第2次 藝術團·故鄉訪問團 交換問題를 來年으로 넘길데 대해서는 추후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質問 : 물론 그러시겠죠. 만약 故鄉訪問團 交換問題가 交渉이 안될 경우에…….

答辯 : 왜 안된다고만 보십니까? 이것을 成事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成事시켜야 됩니다.

質問 : 그것은 當爲의 問題고요.

答辯 : 아니 이걸 어디까지나 成事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벌써 第2次 藝術團·故鄉訪問團 交換을 12月 8日에 하기로 온 世上에 公布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나 成事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質問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月 8日이면 實質적으로 準備期間이라는 것이 한달도 이제 앞으로 안남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答辯 : 한달 남았습니다.

質問 : 아니 그러니까 오늘 合意를 못보셨으니까 다음 13日날 만나셔서 만약에 合意를 하신다 그러더라도 한달이 안남았는데, 果然 그 한달도 안남은 期間에 어떠한 準備事項이 全部다 이루어지리라고 보십니까?

答辯 : 아, 그것 조금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理解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12月 8日에 第2次 藝術團·故鄉訪問團을 交換하기로 할데 대해서는 지난 16日 接觸에서 合意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생각하건데는 모름지기 南側에서도 12月 8日에

藝術團・故鄉訪問團 交換하기 위한 準備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 事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3日에 가서 合意돼도 問題가 없지 않겠는가.

質問：故鄉訪問團과 藝術團 規模를 그동안에는 北側에서는 同數를 主張을 해왔었는데, 그런 意見을 提示해왔었는데, 오늘 故鄉訪問團 規模를 300名으로 事實上 合意하였다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그 동안의 「同數立場」을 變更하신 것입니까?

答辯：雙方會談이니까 어떻게 우리 意見대로만 되겠습니까?

저쪽에서 同數로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大幅 讓步지요. 그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質問：그동안의 세 차례 接觸에서는 繼續 文牧師하고 林秀卿嬢 問題를 舉論 하셨는데 오늘 接觸에서는 이야기를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態度變化입니까?

答辯：어떻게 들었습니까?

나 그 問題에 대해서는 조금 解明하고 싶은데요.

質問：(다른 記者가 說明)아, 그것은 會談 끝나고 代表들이 나갈 때 물어보니까 그렇게 「코멘트」를 해서 안거죠.

答辯：예, 그래요? 그래서요?

質問：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舉論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어떤 態度變化입니까? 이제 더 이상 問題 삼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答辯：우리는 그 問題에 대해서 이미 세 차례의 接觸에서 南側 代表團에게 우리의 立場을 充分하게 傳達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또 그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南側에 그것을 期待는 하고 있습니다.

質問 : 이번 12月 8日에 만약에 故鄉訪問團하고 藝術團이 서로 交換이 될

경우에 外信도 取材가 可能합니까?

答辯 : 그 문제는 이제 討論을 더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相當히 要點的으로 質問해주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